

컨슈머인사이트

월간 국내·해외 여행 동향 보고

2023. 06

코로나 이후 급격하게 변화한 국내외 여행 생태계와 여행소비자 행태에 대한 조사 연구를 통해

첫째



현재의 국내외여행 소비자 행태를
월 단위로 추적 조사하여
여행 시장 상태를
과학적으로 파악하고,

둘째



코로나 이전(2019년)의 상황과
월 단위로 그 결과를 비교해
여행 시장의 회복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셋째



현상 평가와 과거대비 자료 분석을 통해
다가올 변화의 방향과 크기에 대한
합리적 예측을 가능하게 하여,



격변하는 여행 소비자 환경에 대한 시의성 있는 적응과 예측을 도와
여행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2023년 6월 국내·해외 여행 동향 요약

요약

국내외 여행의 ▲지난 1년간의 변화 ▲코로나 이전 대비 현 상황 ▲향후 전망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국내 여행	해외 여행
현황	▶ '23년 6월의 숙박여행 경험률은 67.4%로 전월(69.2%) 대비 감소함. TCI(여행 코로나 지수)는 102로 코로나 전을 다소 상회함. ▶ 숙박여행의 평균기간은 2.07박, 총 경비와 1일당 경비는 각각 23.4만 원과 7.6만 원임. ▶ '호텔' 이용률이 꾸준히 높으나(28.3%) 23년 4월 이후 하락 추세임.	▶ '23년 6월의 해외여행 경험률은 전월에 이어 코로나 이후 최고치를 갱신(23.7%)하였으나, TCI는 57에 그침. ▶ 해외 여행 지역은 전월 대비 아시아권 및 남태평양의 점유율이 소폭 상승하고, 평균 5.60박, 170.9만 원을 지출했으며, TCI는 각각 112, 125임.
코로나 이전 대비	▶ TCI로 보면, 여행 경험률 및 여행 기간, 총 비용, 일 평균 비용 등이 모두 100을 넘어(102~117) 코로나 이전을 상회함. ▶ 숙소 점유율 TCI는 호텔(135)이 크게 증가함.	▶ TCI로 보면 여행 경험률은 57로 코로나 전 대비 40% 이상 낮은 수준이며, 여행기간(112), 총 경비(125)는 코로나 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함. ▶ 여행 계획률 TCI는 78로 코로나 이전 대비 약 20% 낮음. ▶ 그러나 신혼기 가구의 해외 여행 계획률은 전년 대비 큰 폭으로(19.1%p) 상승.
전망	▶ 여행 계획률(75.9%)은 전월과 동일하며, TCI 102로 코로나 이전과 비슷함. ▶ 향후 여름 휴가 일정과 맞물려 여행 계획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여행기간은 줄어들고 1일당 비용도 감소세가 뚜렷함. 단기간, 근거리, 저비용 여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해외여행 경험률 TCI는 57, 계획률 TCI는 78 수준임. ▶ 코로나로 인해 높아졌던 개별 여행 수요가 서서히 패키지 여행 수요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으로, 코로나 이전 대비 가장 선전하고 있는 종합여행사는 하나투어(TCI 116)임.

	여행실태							여행 계획		
	여행 경험률	기간	총 비용	일 평균 비용	여행 지역	주 활동(목적)	숙박	여행 계획률	여행 지역	주 활동(목적)
국내여행	67.4% (지난 3개월)	2.07(박)	23.4(만원)	7.6(만원)	1경상권 24.9%	1자연경관 25.3%	1호텔 28.3%	75.9% (향후 3개월)	1경상권 26.1%	1자연경관 27.0%
TCI	102	117▲	114▲	103	86▽	96	135▲	102	101	91
해외여행	23.7% (지난 6개월)	5.60(박)	170.9(만원)	25.9(만원)	1아시아 78.3%	-	-	44.7% (향후 6개월)	1아시아 75.3%	-
TCI	57▽	112▲	125▲	115▲	101	-	-	78▽	104	-

* TCI(Travel Corona Index 여행 코로나 지수)는 2023년 당월 결과값을 '코로나 발생 전년(19년) 동월 결과값'으로 나눈 수치임
:(2023년 6월 결과)/(2019년 6월 결과) * 100
** ▲▽는 TCI(여행 코로나 지수) 100 대비 ±10 이상인 수치임

CONTENTS

I. 조사개요

II. 국내여행

II-1. 국내여행 동향

II-2. 국내여행 계획

III. 해외여행

III-1. 해외여행 동향

III-2. 해외여행 계획

- 해당 자료는 여행전문 리서치 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2015년 8월 부터 매주 시행하고 있는 '주례 여행 행태 및 계획 조사'를 기초로 함.

모집단

표본추출 틀

표본규모

표본추출 방법

자료수집 방법

표본의 구성(할당)

조사기간

-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 컨슈머인사이트 86만 온라인 비편향 패널
- 매주 500명 (연간 누적 26,000명, 3개월 내 동일응답자 참여 불가)
- 성X연령 및 지역별 할당 후 무작위 추출
- Online/Mobile - 구조화된 온라인 설문지를 통한 이메일 조사

		표집 사례수	
		사례수(명)	구성비
6월 전체		(2,000)	100.0
성별	남성	(1,017)	50.9
	여성	(983)	49.1
연령대	20대	(346)	17.3
	30대	(356)	17.8
	40대	(435)	21.7
	50대	(464)	23.2
	60대 이상	(399)	19.9
성BY 연령대	남성 20대	(181)	9.0
	남성 30대	(184)	9.2
	남성 40대	(220)	11.0
	남성 50대	(236)	11.8
	남성 60세 이상	(196)	9.8
	여성 20대	(165)	8.2
	여성 30대	(172)	8.6
	여성 40대	(215)	10.8
	여성 50대	(228)	11.4
	여성 60세 이상	(203)	10.2

		표집 사례수	
		사례수(명)	구성비
결혼 여부	미혼	(654)	32.7
	기혼	(1,240)	62.0
	기타	(106)	5.3
가구 상황	미혼	(654)	32.7
	신혼기(자녀 없음)	(127)	6.3
	자녀 유아&성장 (막내 입학 전~초등생)	(358)	17.9
	자녀 성장(막내 중고생)	(162)	8.1
	자녀 성인(막내 대학)	(523)	26.2
	자녀 독립(막내 결혼)	(176)	8.8
가구 월소득 (모름 제외)	300만원 미만	(278)	14.9
	300~500만원 미만	(516)	27.7
	500~700만원 미만	(528)	28.3
	700만원 이상	(540)	29.0

- 매주 '월요일~일요일' 자료 수집 : 연중 무휴(연 52주)

[참고] 휴일 달력

I. 조사 개요

6/39

2023년 5월 (전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30	1	2	3	4	5 어린이날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부처님오신날
28	29	30	31	1	2	3

2023년 06월 (당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28	29	30	3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

2023년 07월 (익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25	26	27	28	29	3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30	24 31	25	26	27	28	29

2022년 6월 (전년 동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현충일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	2

CONTENTS

I. 조사개요

II. 국내여행

II-1. 국내여행 동향

II-2. 국내여행 계획

III. 해외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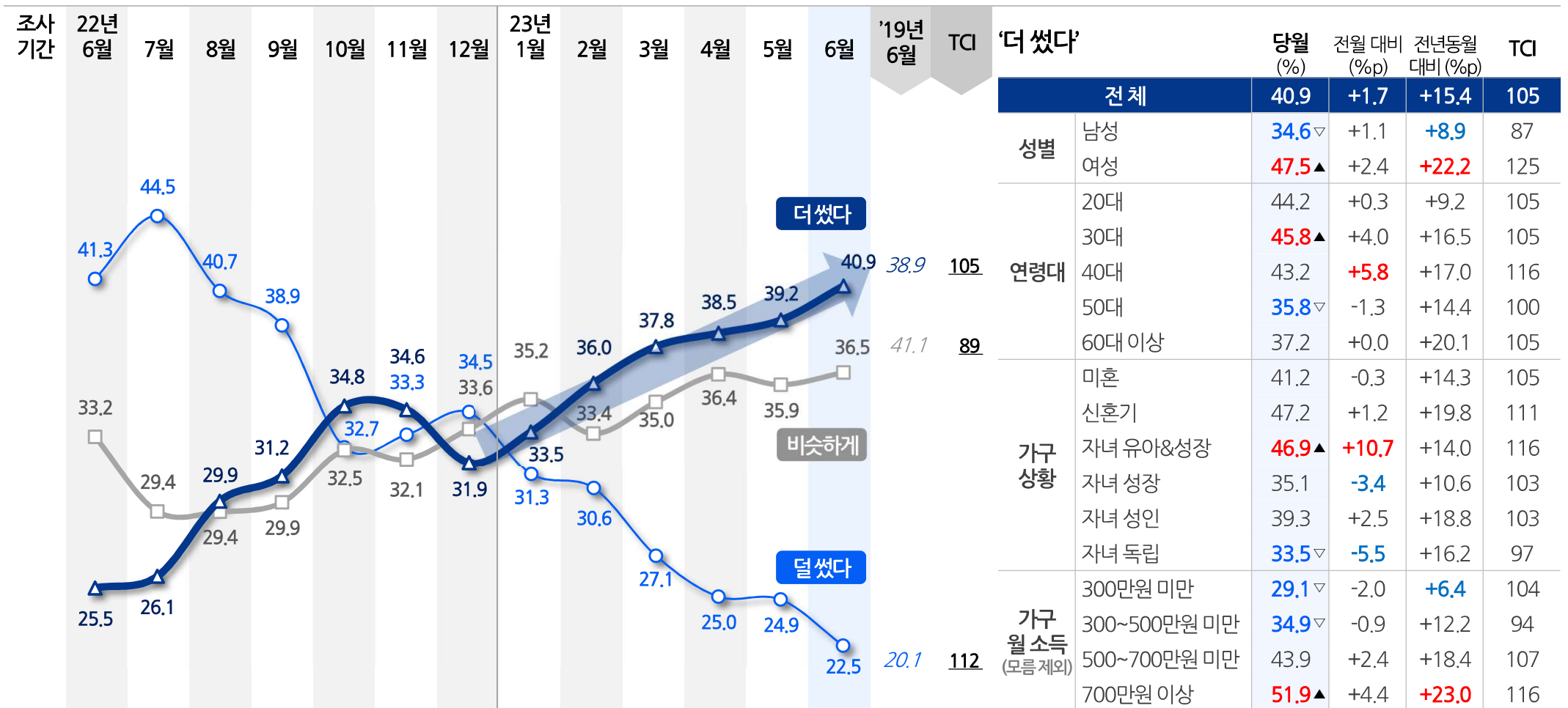
III-1. 해외여행 동향

III-2. 해외여행 계획

1. 여행비 지출 동향 (지난1년)

- 여행비 지출 동향(% , 더 썼다)은 지난해 말 이후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며, 전월 대비 소폭 상승하여 40.9%임.
- 코로나 이전 동월 대비 TCI는 105로 코로나 이전 대비 약간 상승함.
- 인구특성별로는 △여성 △30대 △자녀 유아 및 성장기 △가구 월 소득 700만원 이상에서 '더 썼다' 응답이 많음.

[단위 : %]



※ 조사 표본수 : 주 500명, 월 2,000명(5주가 있는 월은 2,500명)

분석 표본수 : 주별 분석은 자료의 안정성을 위해 그 전 주와 단순이동 평균함(1,000명)

SQ1-1. 귀하께서는 지난 1년간 국내·해외 합하여 관광·여행비로 쓴 비용이 그 전년도에 비해 어느 정도 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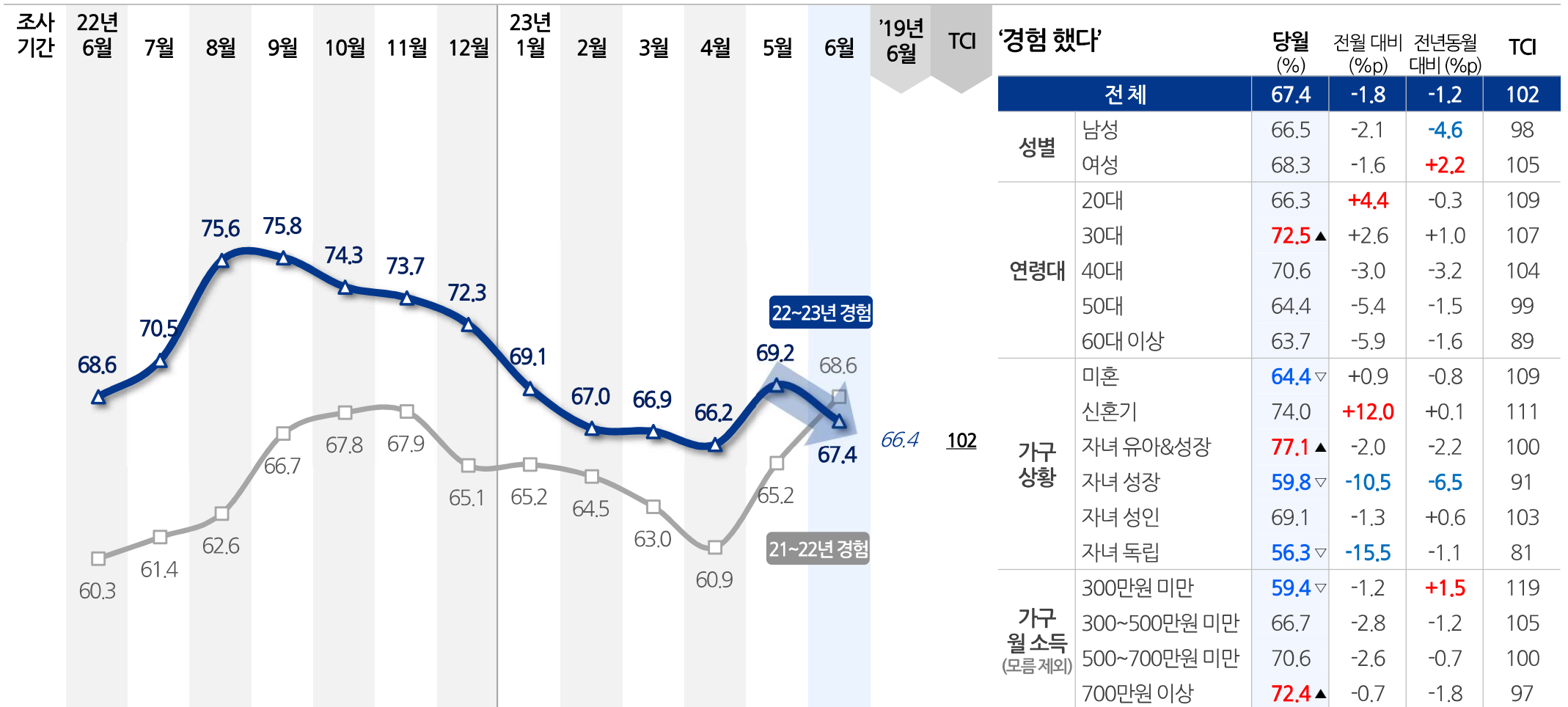
* ▲▼ 표시된 수치는 전체 값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p<0.05)

** 비교%p는 상·하위 2개에 대해 색깔로 표시함

2. 국내 숙박여행 경험률 (지난 3개월)

- 국내 숙박여행 경험률은 67.4%로 전월에 8개월만에 반등한 후 다시 감소함.
이는 전년 동월(68.6%) 대비 1.2%p, 전월(69.2%) 대비 1.8%p 낮은 수치임.
- 국내 숙박여행 경험률 TCI지수는 102로 코로나 이전 수준임.
- 인구특성별로는 △30대 △자녀 유아 및 성장기 △가구 월소득 700만원 이상 가구에서 높음.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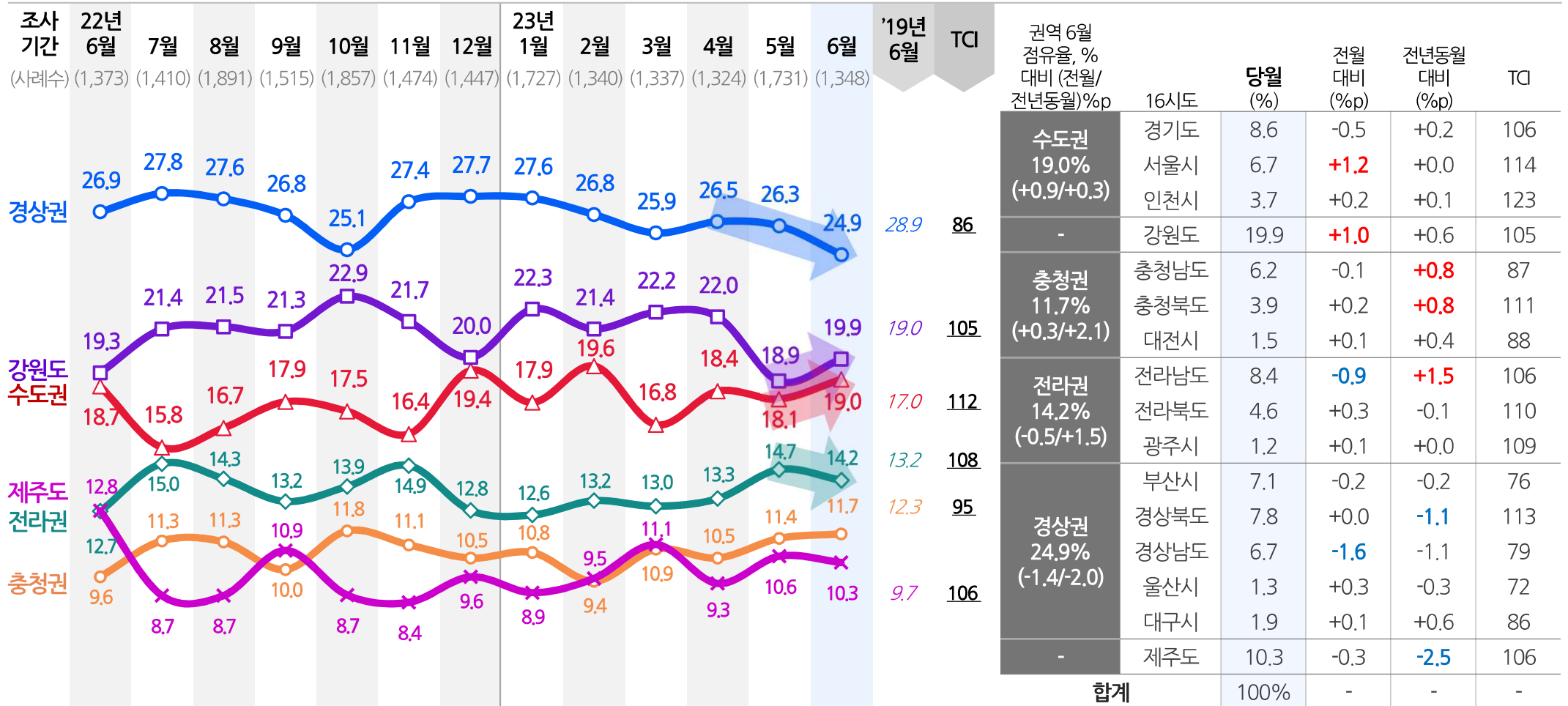
※ 조사 표본수: 주 500명, 월 2,000명(5주가 있는 월은 2,500명)
 분석 표본수: 주별 분석은 자료의 안정성을 위해 그 전 주와 단순이동 평균함(1,000명)
 SQ4-0-1. 귀하께서는 지난 3개월간 1박 이상의 일정으로 여행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 ▲▽ 표시된 수치는 전체 값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p<0.05)
 ** 비교%p는 상하위 2개에 대해 색깔로 표시함

3. 국내 숙박여행 지역

- 당월 숙박 여행지 점유율은 '경상권(24.9%)', '강원도(19.9%)', '수도권(19.0%)' 순임.
- '강원도'(18.9%→19.9%), '수도권'(18.1%→19.0%), '충청권'(11.4%→11.7%)의 여행지 점유율은 전월 대비 상승함.
- 전년 동월 대비 여행지 점유율이 상승한 지역은 '충청권(2.1%p)', '전라권'(1.5%p)', '강원도'(0.6%p)', '수도권'(0.3%p) 지역임.
- 국내 숙박여행 지역의 TCI는 수도권 112, 전라권 108, 제주도 106로 수도권이 가장 크게 높음.

[단위: %]



AA2-1. 가장 최근에 다녀온 국내 여행지는 어디입니까? 하나만 선택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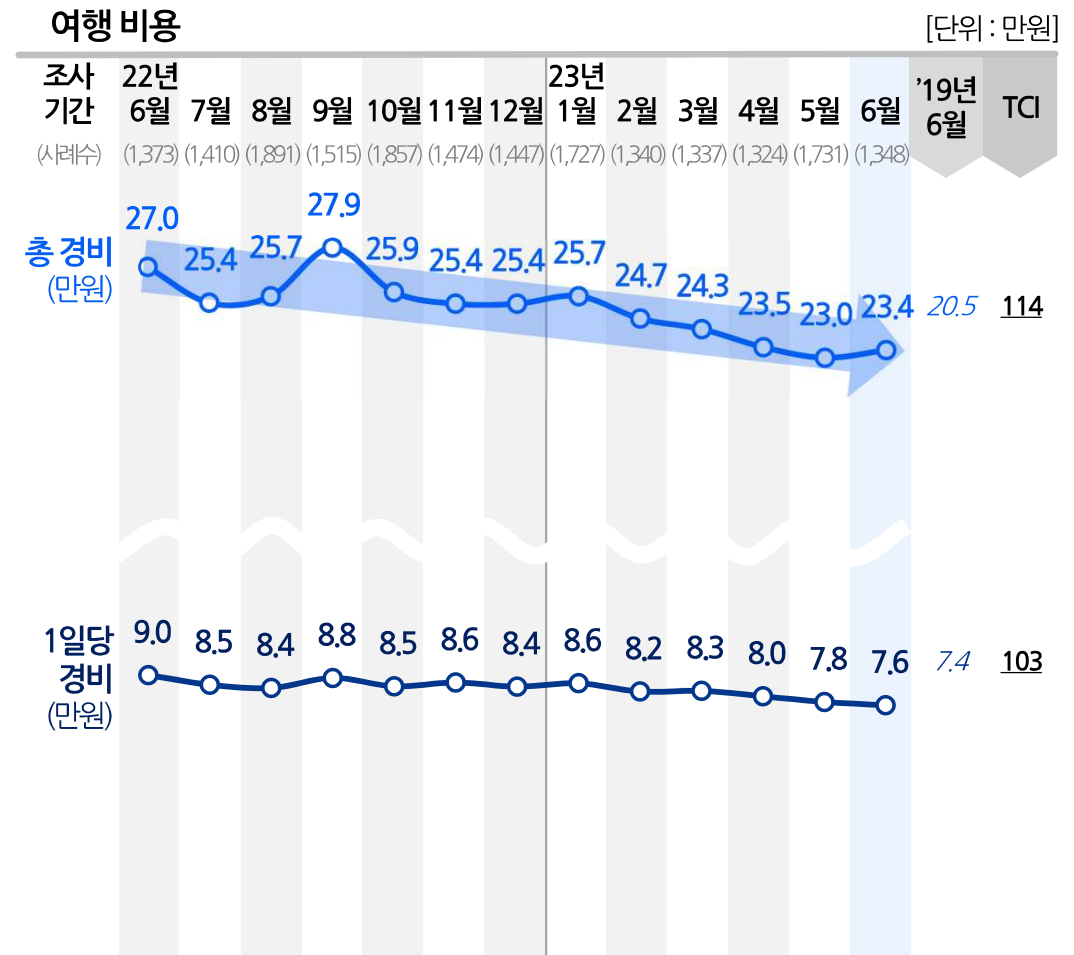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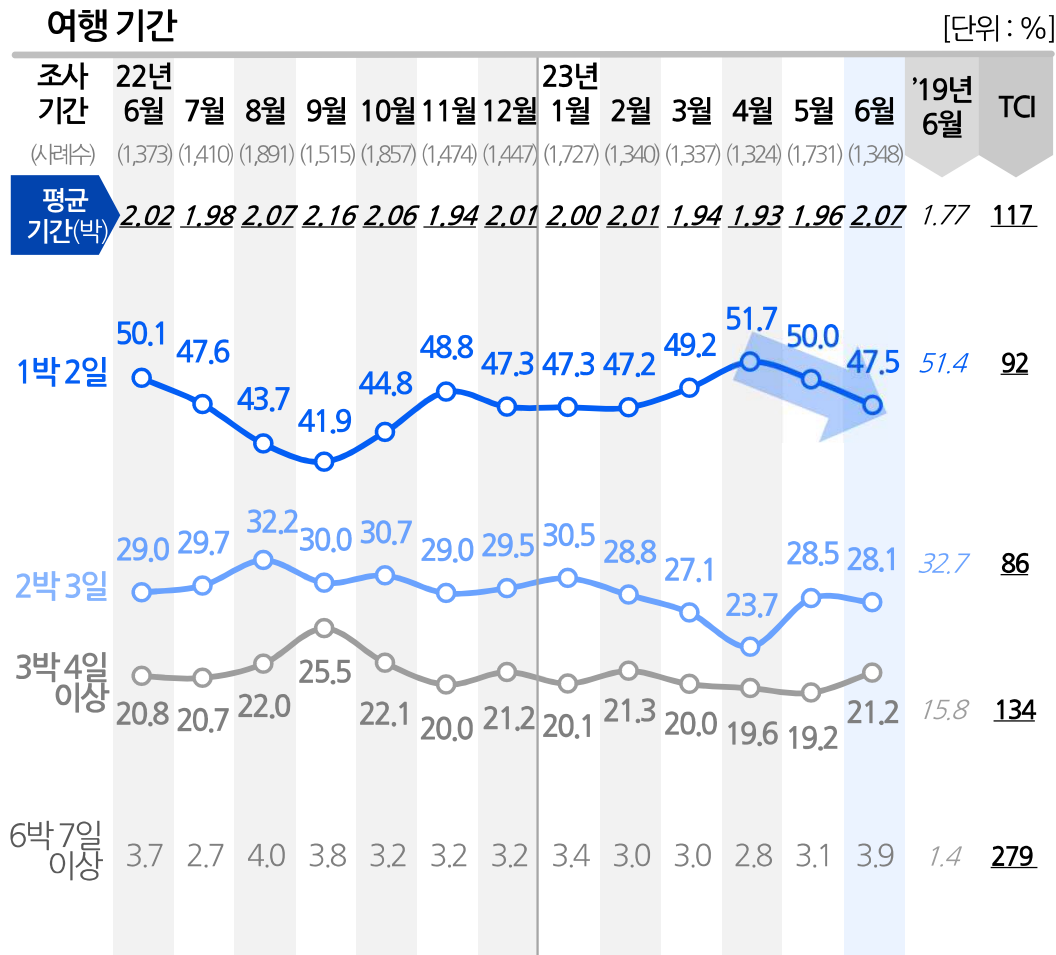
*비교%p는 상·하위 2개에 대해 색깔로 표시함

4. 국내 숙박여행 기간 및 비용

II-1. 국내여행 동향

11/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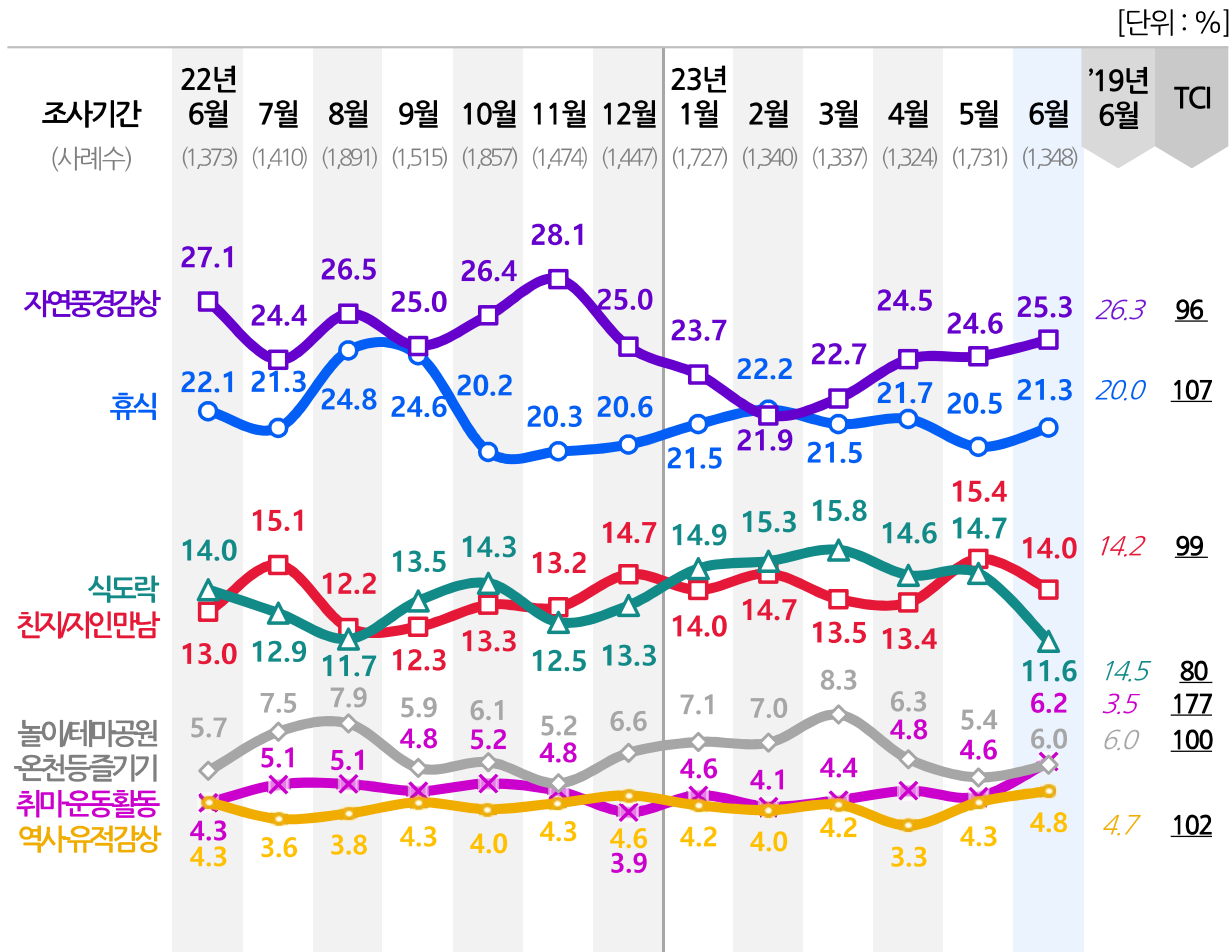
- 여행 기간은 '단기 여행(1박 2일)'이 전월 대비 2.5%p 하락, 3박 4일 여행 비중이 전월 대비 2.0%p 증가함.
- 여행 총 경비는 23.4만 원, 1일당 경비는 7.6만원으로 전월과 유사한 수준이나 지난 1년 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임.
- 여행 기간과 총 경비 TCI는 각각 117, 114로 '19년 6월 대비 상승 했으나, 1일당 경비는 103로 코로나 전과 거의 같음.



5. 국내 숙박여행 주 활동

II-1. 국내여행 동향

- 국내여행 주 활동은 '자연 풍경 감상'이 25.3%로 가장 높으며, 이어 '휴식(21.3%)', '친지/지인만남(14.0%)', '식도락'(11.6%) 순임.^{12/39}
- '자연 풍경 감상'은 강원도와 제주도에서, '친지/지인만남'은 수도권과 경상권에서 높았음.
- TCI가 가장 높은 활동은 취미-운동 활동(177)'이며, 이어 '휴식(107)', '역사-유적 감상(102)', '놀이/테마공원-온천 등 즐기기(100)' 등의 순임



▶ 여행지역별 주 활동 (당월 기준)

[단위: %]

	전체	여행 지역					
		수도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	강원도	제주도
(사례수)	(1,348)	(256)	(157)	(336)	(191)	(269)	(139)
자연 풍경 감상 (산, 바다 등)	25.3	12.4▽	21.0	19.4▽	23.0	40.0▲	43.2▲
휴식	21.3	22.2	22.9	19.4	20.4	21.8	23.0
식도락 (지역 특색/제철 음식)	11.6	10.5	12.7	11.3	15.2	10.7	10.1
친지/친구/ 친척 만나기	14.0	18.0▲	13.4	19.7▲	14.1	7.8▽	5.0▽
놀이/테마공원- 온천 등 즐기기	6.0	9.0▲	7.7	6.0	3.7	5.9	2.2▽
취미-운동 활동 (등산, 낚시, 골프 등)	6.2	4.7	8.9	5.4	5.8	4.8	10.8▲
역사 유적 감상 (유적지, 박물관 등)	4.8	6.7	3.8	7.4▲	4.2	2.6	1.4▽

AA15-2. 'OO' 여행을 다녀온 주 목적은 무엇인가요? 하나만 선택해주시시오.

* ▲▽ 표시된 수치는 전체 값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p<0.05)

6. 국내여행 숙박 장소 및 선택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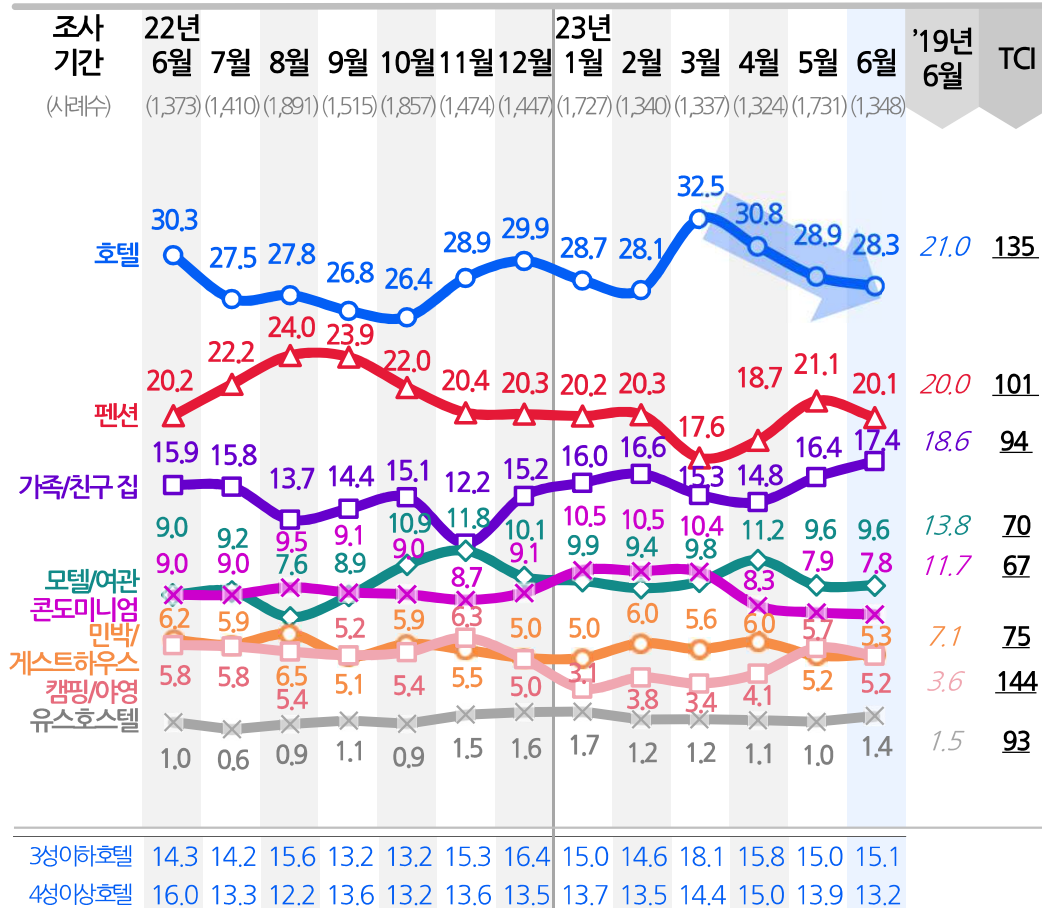
II-1. 국내여행 동향

13/39

- 숙박 장소는 ‘호텔(28.3%)’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 ‘펜션(20.1%)’, ‘가족/친구 집(17.4%)’의 순임.
- ’23년 3월 이후 호텔 이용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펜션 이용률 역시 6월에 전월 대비 낮아지고, 가족/친구 집이 상승하였는데, 이는 편리한 교통편 및 여행경비 절감을 위한 선택인 것으로 풀이됨.
- 숙박 업소 선호 이유의 TCI는 ‘숙박비용’이 119으로 가장 높았고, 가장 주된 이유인 ‘관광지 접근성 및 교통편’은 74에 불과함.
- 최근 3개월 연속 호텔 이용률은 감소, 펜션 이용률 역시 전월 대비 감소해, 숙박업체의 가격 경쟁이 숙박 장소 선택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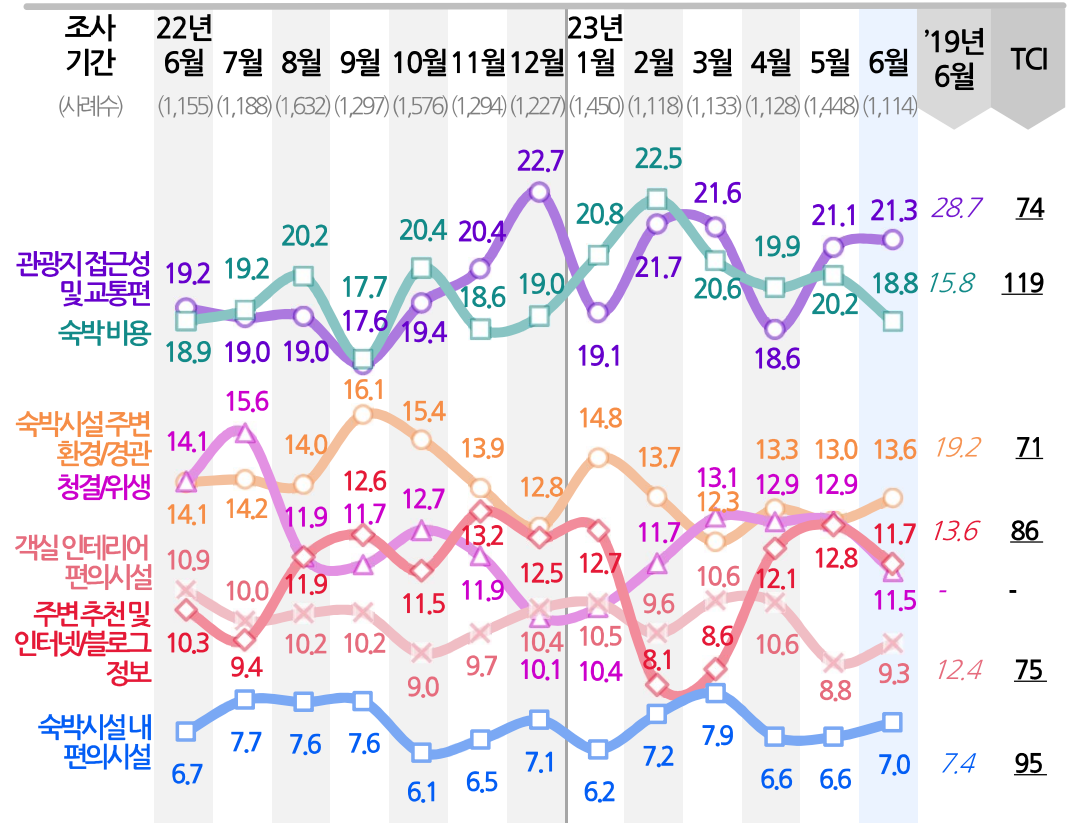
국내여행 숙박행태

[단위: %]



숙박업소 선호이유

[단위: %]



* 사례수 1,114명, 가족/친구집 제외

AA10. 'OO'에서는 주로 어떤 곳에서 숙박하셨습니다?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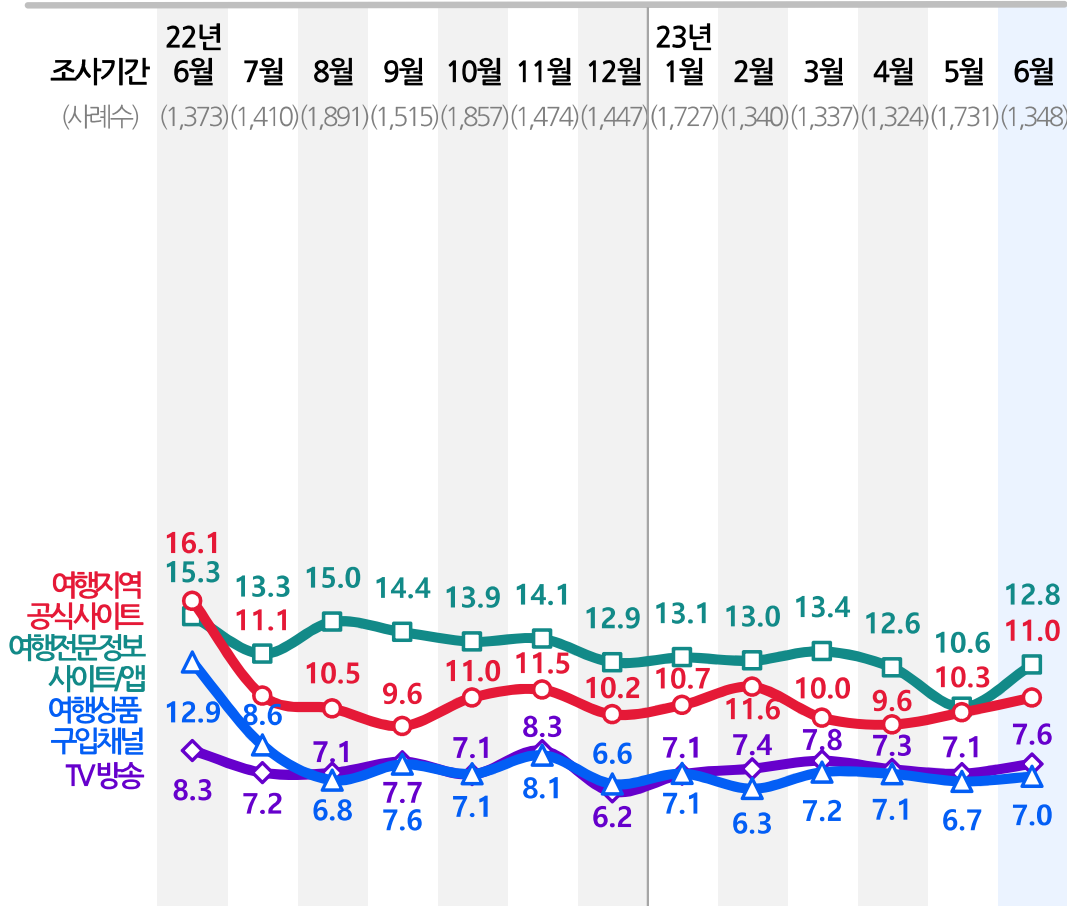
AA11-1. 이용하신 숙박시설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7. 국내여행 여행지 정보탐색

- 국내 여행지 정보탐색에 있어서는 ‘전문/공식 정보채널’이 ‘SNS/커뮤니티 정보채널’ 대비 열세가 뚜렷함.
- ‘전문/공식 정보채널’ 4종은 모두 점진적으로 감소세인 가운데, 6월 들어 다소 상승하는 경향을 보임.
- ‘SNS/커뮤니티 정보채널’ 역시 ‘지인 추천’은 감소한 반면, ‘블로그’, ‘유튜브’, ‘커뮤니티/카페’는 다소 상승함.
- 국내 여행지 정보탐색에 지인 의견 보다 불특정 다수의 선호, 추천 등이 더 영향을 발휘하는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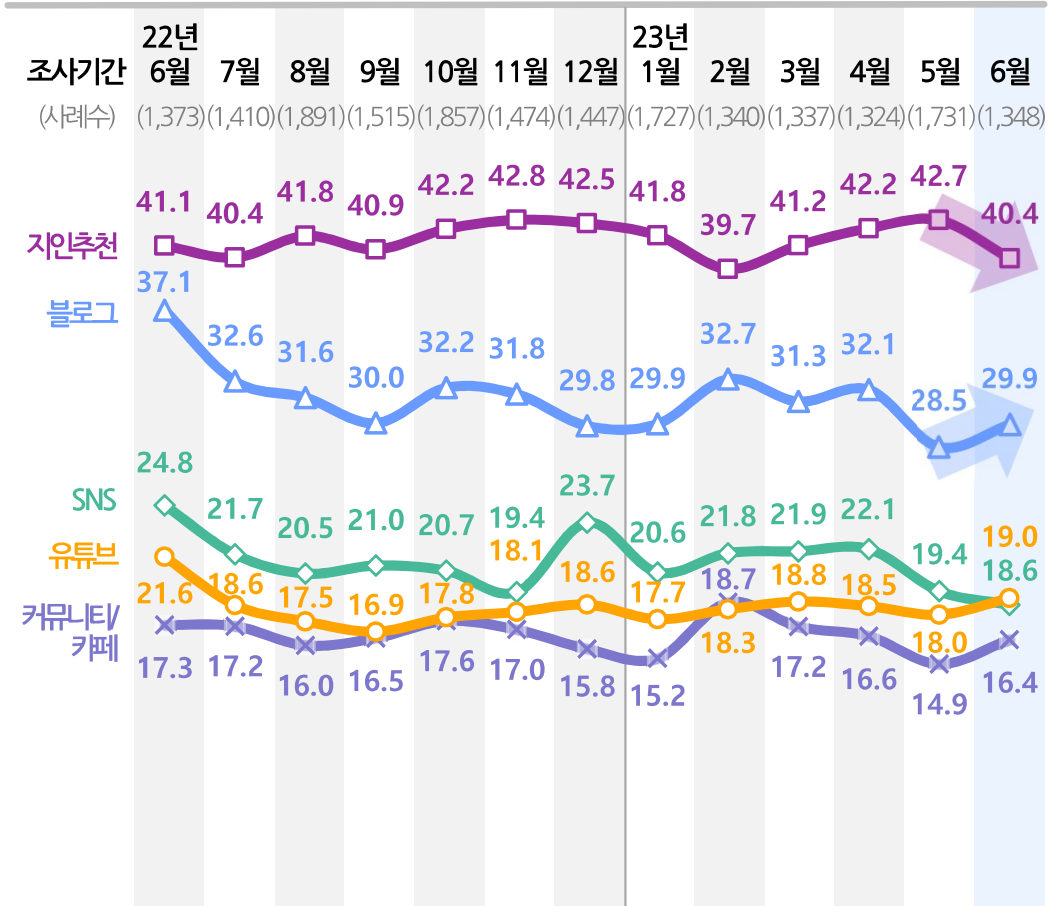
전문/공식 정보채널

[단위 : %]



SNS/커뮤니티 정보채널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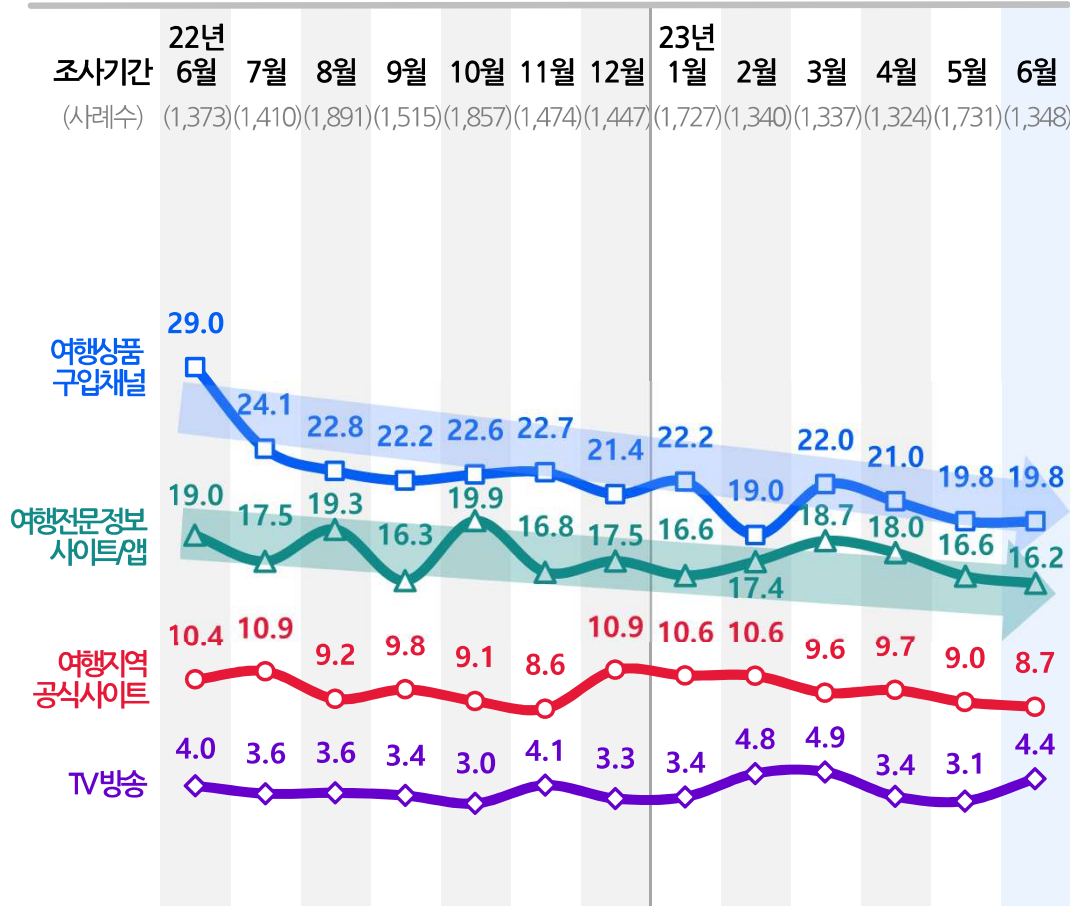
AA2-3-0. 'OO' 여행의 각 준비단계에서 어떤 정보원을 참고하셨습니다?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여행지 결정 시)

8. 국내여행 숙소 정보탐색

- 국내여행 숙소 정보탐색에 있어서는 ‘전문/공식 정보채널’의 부진이 뚜렷함.
특히 ‘여행상품 구입채널’ 및 ‘여행전문 정보 사이트/앱’의 하락이 두드러짐.
- ‘SNS/커뮤니티 정보채널’은 모두 전년 동월 대비 다소 상승한 추세임.
- 숙소 정보탐색 시에도 지인추천을 가장 많이 활용하나, 그 비율이 전월 대비 다소 낮아진 반면, 블로그는 다소 증가함.
- 전반적으로 ‘여행지’와 ‘숙소’ 모두 신뢰할 만한 정보 소스가 없으며, 그 활용도도 점점 낮아지는 추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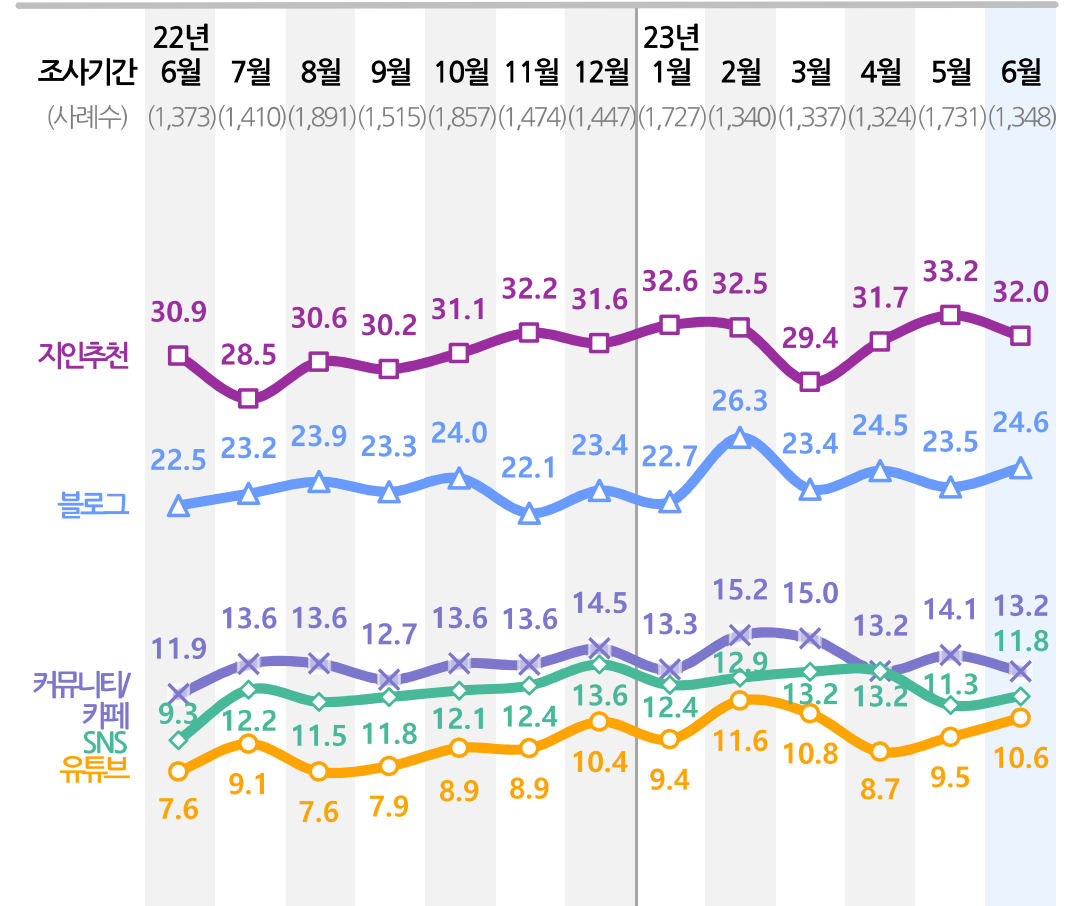
전문/공식 정보채널

[단위 : %]



SNS/커뮤니티 정보채널

[단위 : %]



AA3-0. 'OO' 여행의 각 준비단계에서 어떤 정보원을 참고하셨습니다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숙소)

CONTENTS

I. 조사개요

II. 국내여행

II-1. 국내여행 동향

II-2. 국내여행 계획

III. 해외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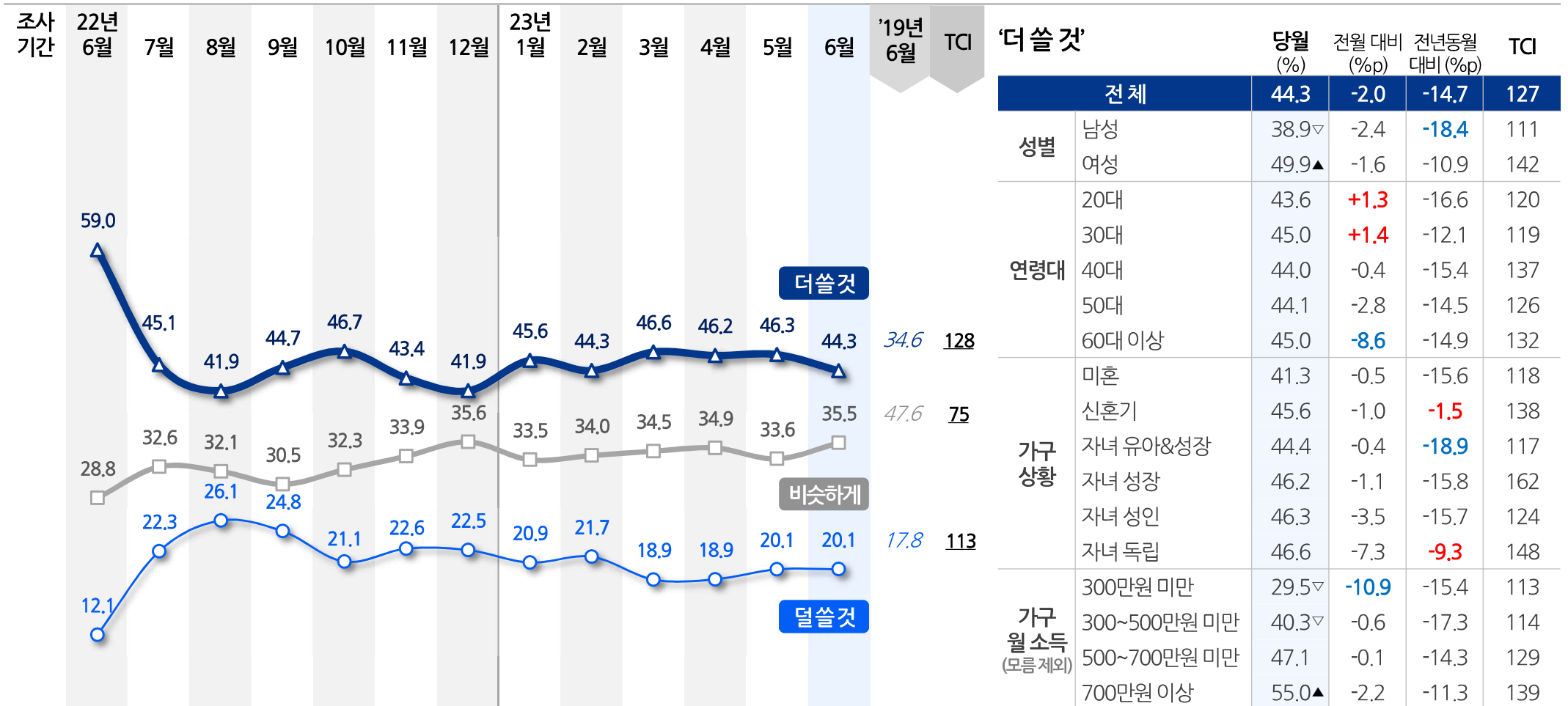
III-1. 해외여행 동향

III-2. 해외여행 계획

1. 국내 여행비 지출 의향 (향후 1년)

- 고물가 충격이 컸던 작년 하반기부터 ‘더 쓸 것’은 크게 줄고, ‘덜 쓸 것’은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개인의 의지 보다는 급속한 물가상승이라는 환경변화의 영향이 더 컸음.
- ‘더 쓸 것’은 코로나 이전 동월('19년 6월 34.6%) 대비 TCI 역시 128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더 쓸 것’ 보다는 ‘더 들 것’의 의미임.
- 인구특성별로는 △여성 △가구 월 소득 700만원 이상에서 지출 증가예상이 높음.
- 자녀의 연령대가 높을수록, 가구 월 소득이 높을수록 ‘더 쓸 것’ 예상이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남.

[단위: %]



※ 조사 표본수: 주 500명, 월 2,000명(5주가 있는 월은 2,500명)

분석 표본수: 주별 분석은 자료의 안정성을 위해 그 전 주와 단순이동 평균함(1,000명)

SQ1-3. 국내여행만 보면 향후 1년간 쓸 관광·여행비가 지난 1년에 비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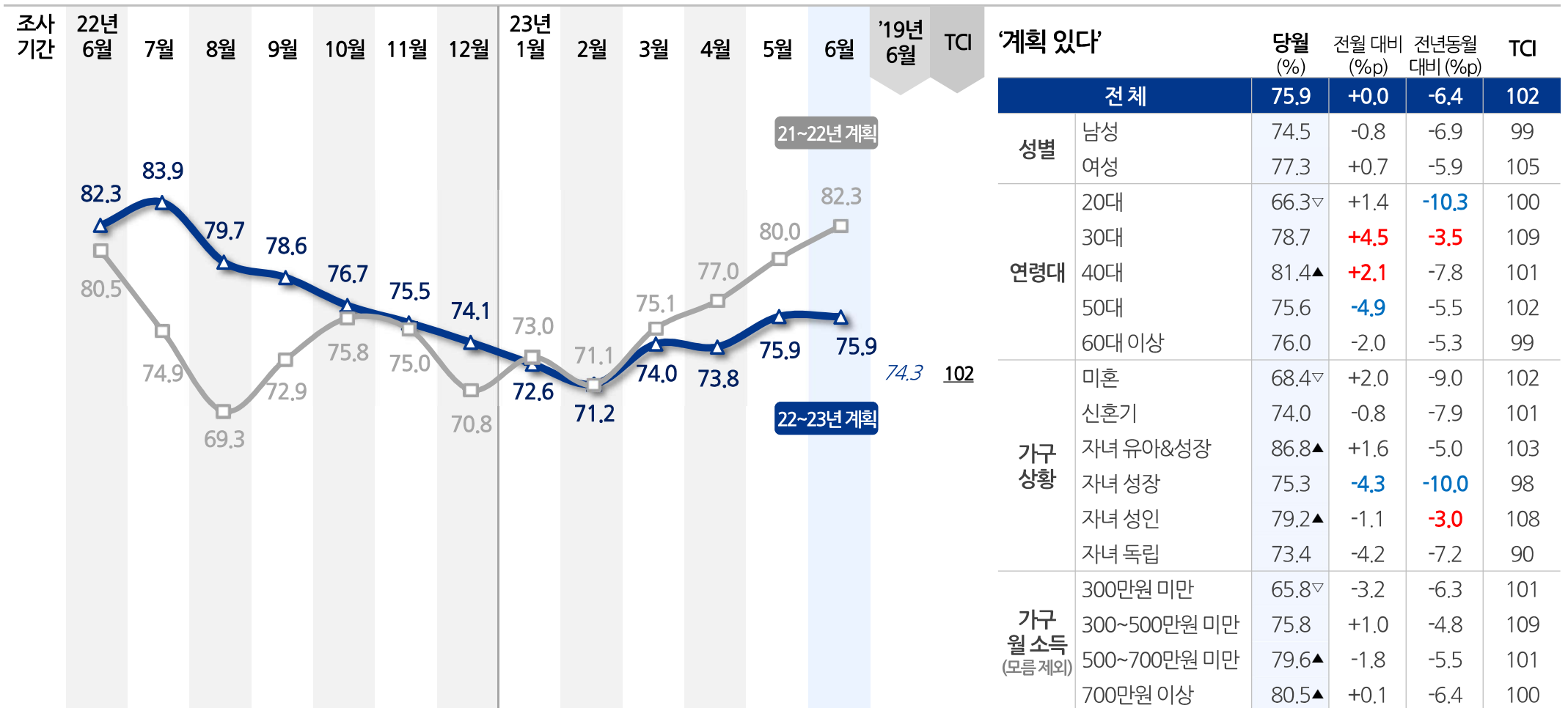
* ▲▽ 표시된 수치는 전체 값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p<0.05)

** 비교%p는 상·하위 2개에 대해 색깔로 표시함

2. 국내 숙박여행 계획률 (향후 3개월)

- 당월 국내 숙박여행 계획률은 75.9%로 전월과 동일한 수준임.
- TCI는 102로 코로나 이전 동월(74.3%)보다 다소 높음.
- 인구특성별로는 △40대 △자녀 유아기 △자녀 성인기 △가구 월 소득 500만원 이상에서 높음.
- △ 가구 월 소득 300~500만원 미만의 TCI는 109으로 가장 높음

[단위: %]



※ 조사 표본수: 주 500명, 월 2,000명(5주가 있는 월은 2,500명)
 분석 표본수: 주별 분석은 자료의 안정성을 위해 그 전 주와 단순이동 평균함(1,000명)
 SQ4. 귀하께서는 향후 3개월 내 1박 이상의 일정으로 여행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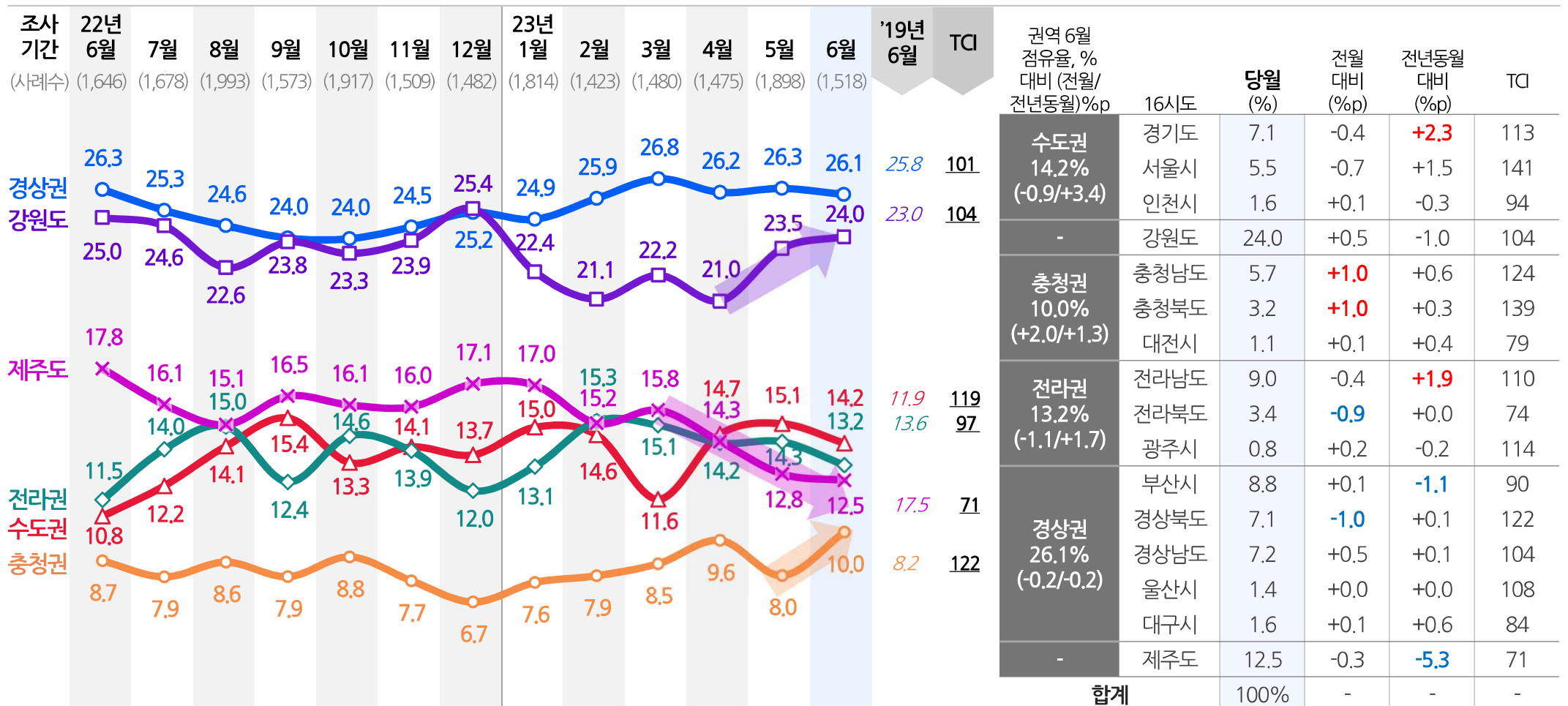
* ▲▽ 표시된 수치는 전체 값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p<0.05)
 ** 비교%p는 상하위 2개에 대해 색깔로 표시함

3. 국내 숙박여행 예정 지역

II-2. 국내여행 계획

- 국내여행 예정 지역은 '경상권(26.1%)'과 '강원도(24.0%)'가 높고, 이어 '수도권(14.2%)', '전라권(13.2%)', '제주도(12.5%)' 순이며, 전월 대비 충청권이 2.0%p 상승함.
- 전년 동월 대비 제주도는 하위권으로 크게 하락했는데(17.8% → 12.5%), 해외여행 폭증과 고물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
- 여행 예정지의 TCI는 충청권이 122로 가장 높고, 수도권 119, 강원도 104순이며, 제주도는 71에 불과함.
- 제주도는 코로나 전, 전년 동월, 전월 대비 모두 낮아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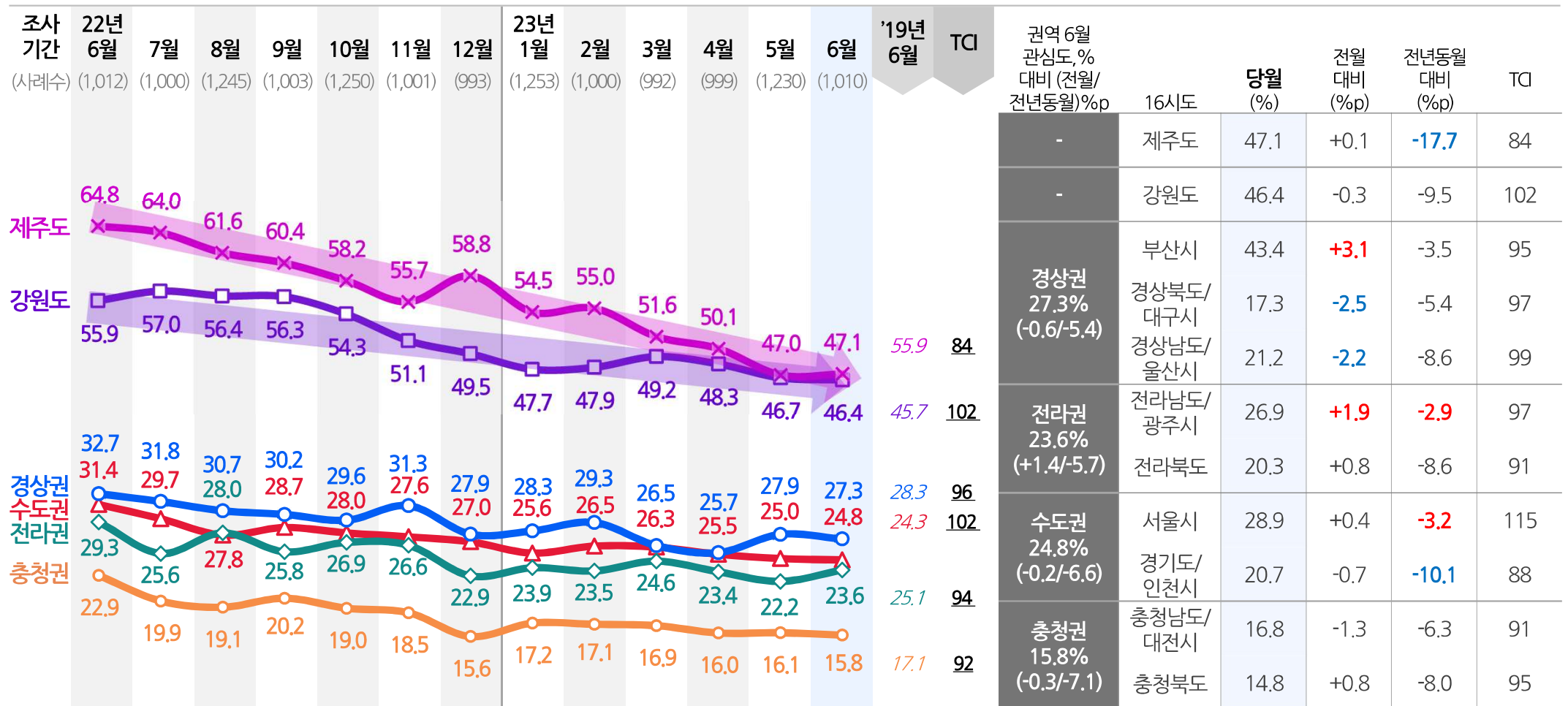
A2-1&2. 앞으로 계획하고 계신 국내 여행지는 어디입니까? 하나만 선택해주시요.

*비교%p는 상·하위 2개에 대해 색깔로 표시함

4. 국내 여행지 관심도

- 최근 1년 이내 국내여행 지역 관심도(% , '많아졌다')는 해외여행의 재개로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임.
- 제주도는 6월 기준으로 '19년 55.9%, '22년 64.8%, '23년 47.1%로, 급하락하여 TCI가 84 수준으로 하락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 2위 강원도 역시 하락세이나 '23년 6월 46.4%로 제주도와 선두 다툼을 하고 있고 TCI는 102로 가장 높아 양호한 수준으로 보임.

[단위 : Top2 box%(매우 많아졌다+많아졌다)]



SQ2-1. 요즘 000을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예전에 비해 ... (5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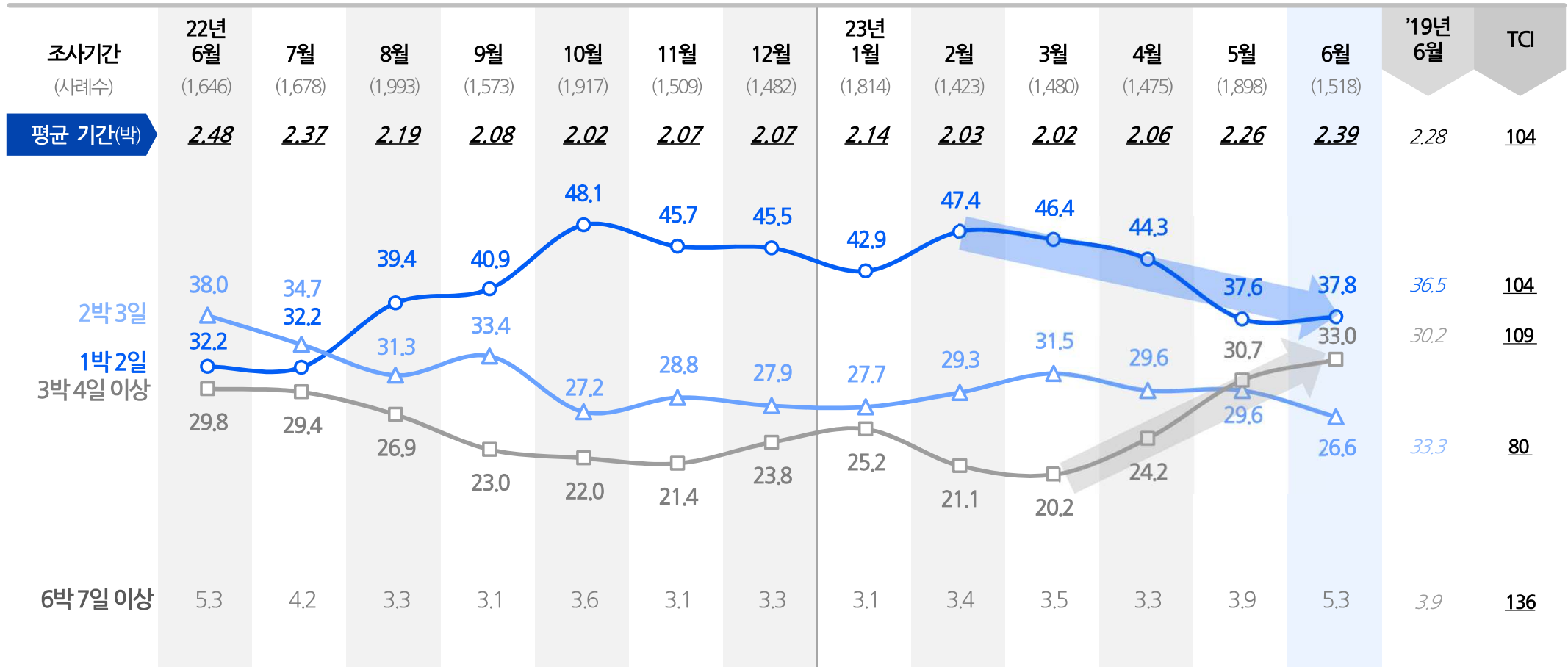
* 비교%p는 상·하위 2개에 대해 색깔로 표시함
** 권역 관심도는 해당 권역 내 시도 관심도의 산술평균임

5. 국내 숙박여행 계획 기간

- 당월 국내 숙박여행 계획 기간은 평균 2.39일로 '22년 7월 이후 최장 기간이나, 전년 6월(2.48박) 보다 짧고 TCI는 104임.
- '3박 4일 이상' 일정이 전월 대비 2.3%p 상승한 반면, '1박 2일' 단기 여행 계획은 2월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했으나, 6월에 소폭 상승함.

계획 중인 여행 기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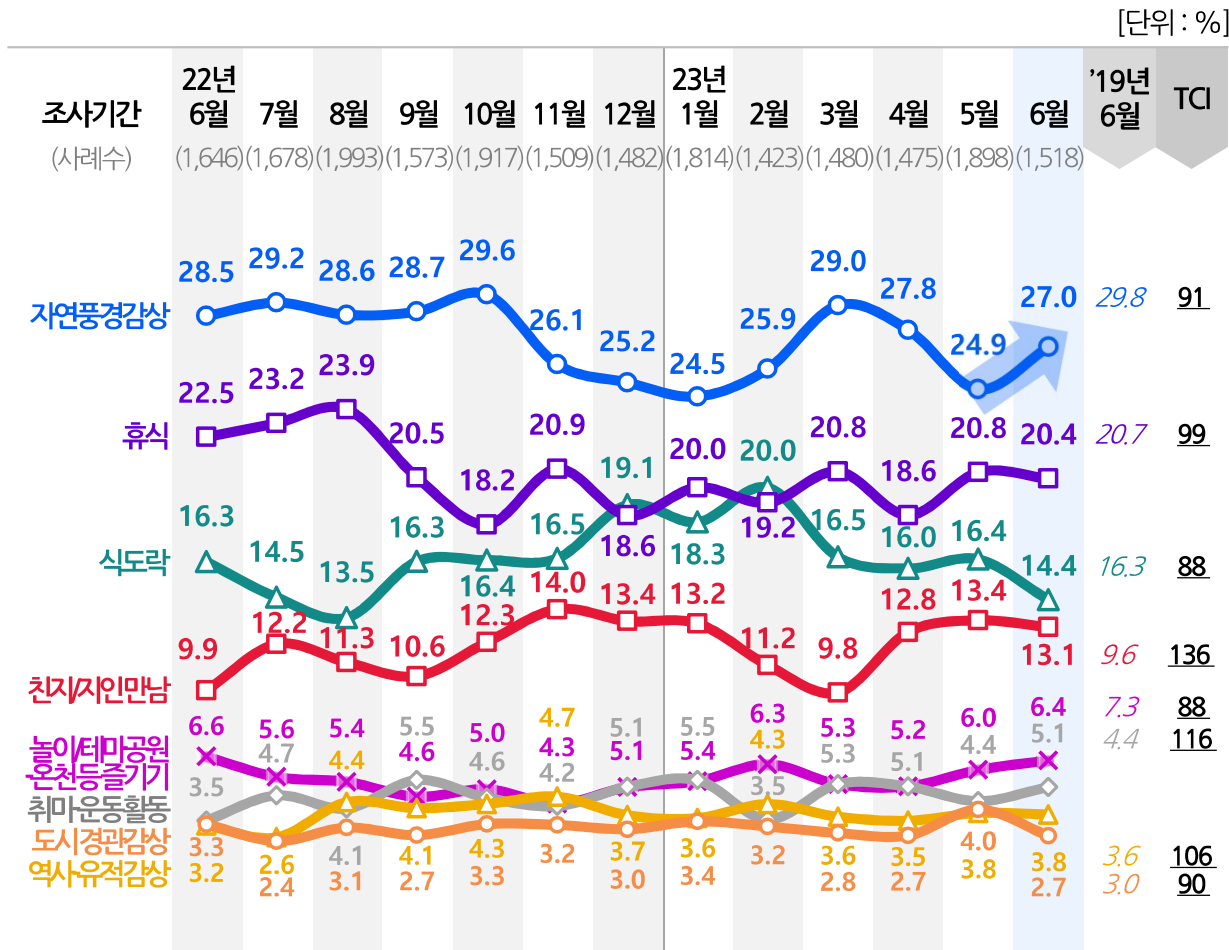
A3-1. 계획하고 계신 'OO' 여행 시기를 달력을 보고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국내 숙박여행 계획 활동

II-2. 국내여행 계획

22/39

- 계획 중인 여행의 주 목적은 '자연 풍경 감상(27.0%)', '휴식(20.4%)', '식도락(14.4%)' 등의 순임.
- 전월 대비 '자연 풍경 감상'이 2.1%p 상승했고, 강원도와 제주도에 상대적으로 높으며, '휴식'은 전월과 유사한 수준임.
- '자연 풍경 감상'은 강원도와 제주도에, '식도락'은 전라권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계획 활동 TCI는 '친지/지인만남'이 136으로 가장 높았고, '식도락'(88) 및 '놀이/테마공원-온천 즐기기'(88)는 '19년 동월 대비 하락함.



A4-3. 여행을 하고자 하는 주 목적은 무엇인가요? 하나만 선택해주시요.

▶ 여행지역별 주 계획 활동 (당월 기준)

[단위: %]

	전체	여행 지역					
		수도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	강원도	제주도
(사례수)	(1,518)	(216)	(152)	(395)	(200)	(365)	(189)
자연 풍경 감상 (산, 바다 등)	27.0	9.7▽	27.5	23.5	25.5	35.3▲	39.1▲
휴식	20.4	17.1	18.5	21.1	14.6▽	23.8	24.3
식도락 (지역 특색/제철 음식)	14.4	6.5▽	12.5	15.2	21.4▲	15.5	13.8
친지/친구/친척 만나기	13.1	24.6▲	21.1▲	14.7	14.5	4.7▽	4.8▽
놀이/테마공원-온천 등 즐기기	6.4	10.2▲	2.6▽	4.8	3.5	9.3▲	6.3
취미·운동 활동 (등산, 낚시, 골프 등)	5.1	4.6	5.9	5.1	7.0	4.6	4.2
역사 유적 감상 (유적지, 박물관 등)	3.8	3.7	3.9	5.3	5.5	1.9▽	2.1
도시 경관 감상 (건축물, 거리 등)	2.7	2.8	1.9	3.8	4.0	1.1▽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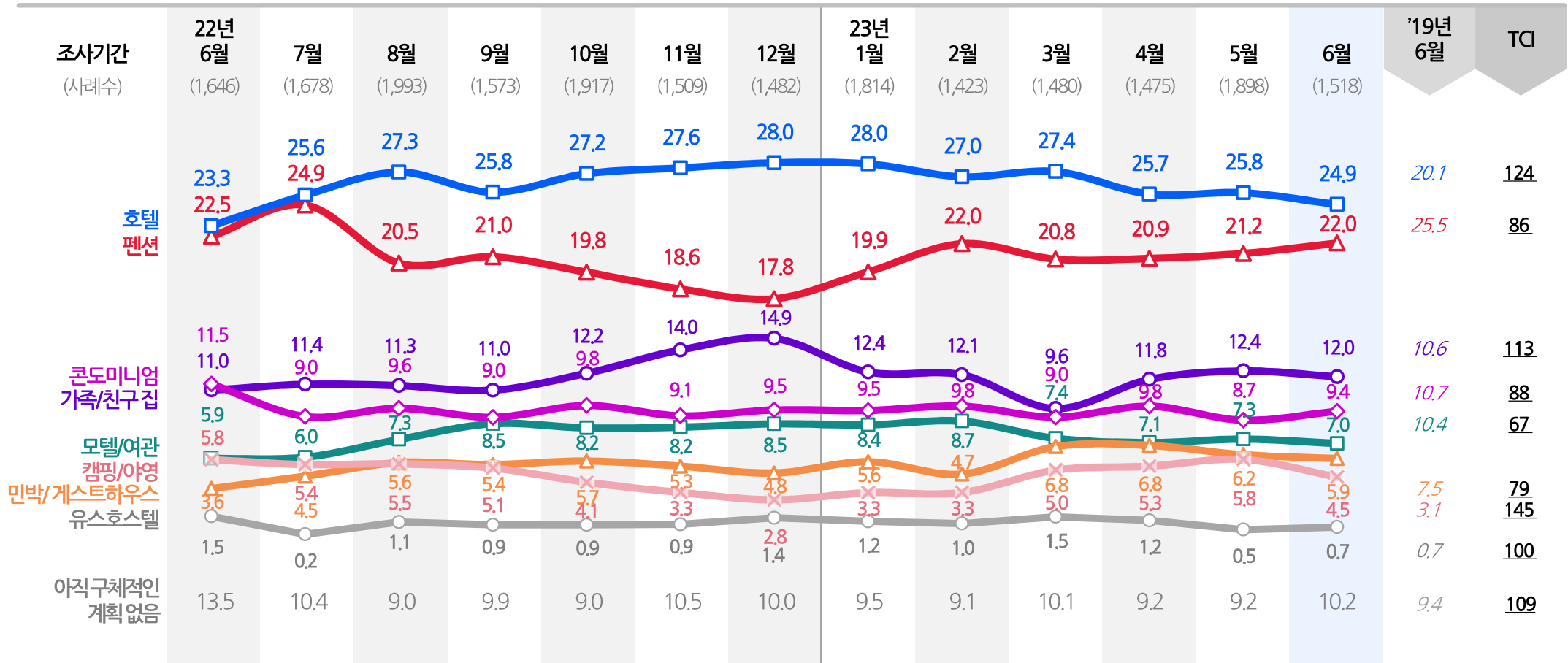
* ▲▽ 표시된 수치는 전체 값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p<0.05)

7. 국내여행 숙박 계획 및 고려 요소

- 숙박 예정 장소는 ‘호텔(24.9%)’, ‘펜션(22.0%)’, ‘가족/친구 집(12.0%)’ 순임.
- 숙박 예정 장소 TCI는 ‘캠핑/야영’이 145으로 코로나 전보다 크게 증가했으며 ‘호텔’(124) 및 ‘가족/친구 집’(113)도 증가함.

국내여행 숙박행태

[단위: %]



A10. 여행지에서는 주로 어떤 곳에서 숙박하실 계획이십니까? 하나만 선택해주세요

CONTENTS

I. 조사개요

II. 국내여행

II-1. 국내여행 동향

II-2. 국내여행 계획

III. 해외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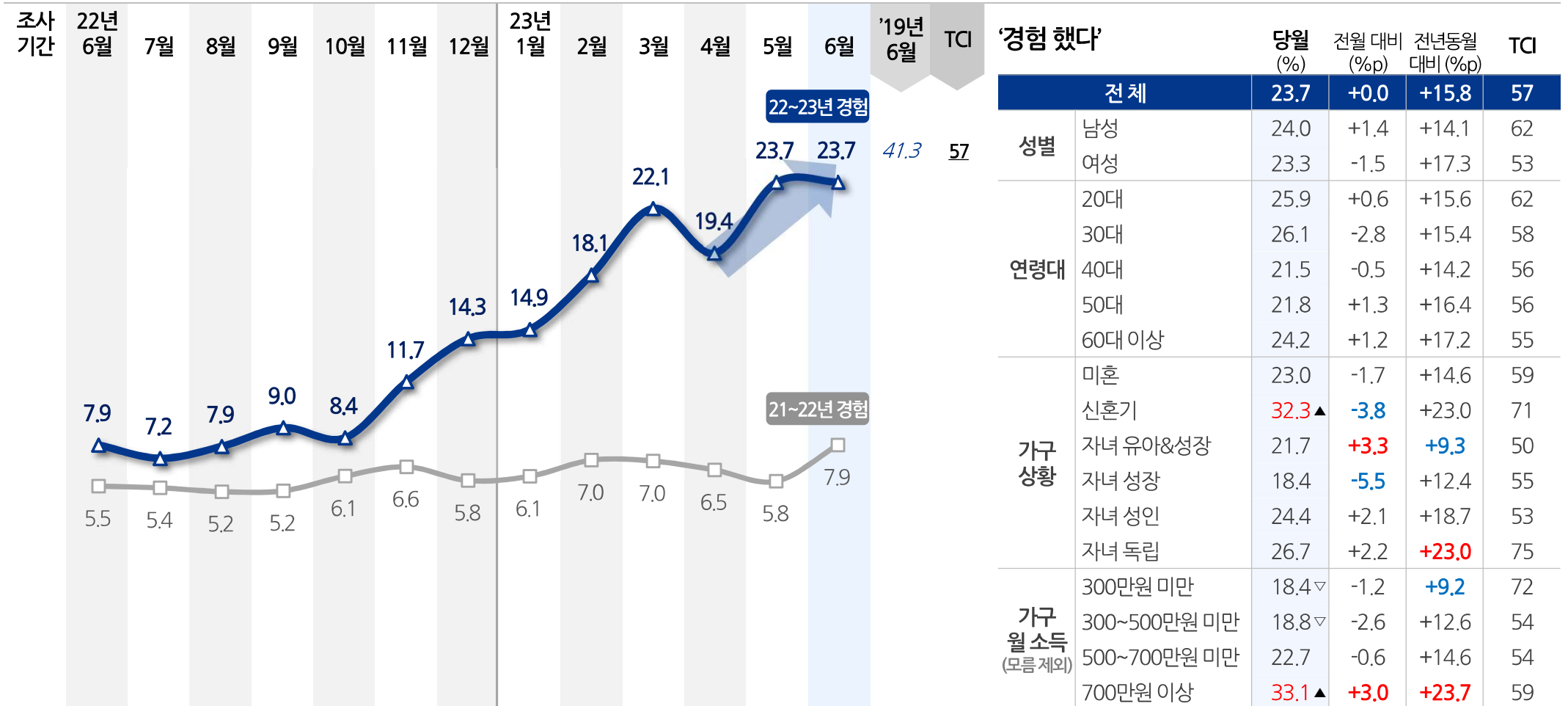
III-1. 해외여행 동향

III-2. 해외여행 계획

1. 해외여행 경험률 (지난 6개월)

- 지난해 11월부터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던 해외여행 경험률은 전월과 동일한 23.7%로 코로나 이후 여전히 최고 수준을 보임.
- △신혼기의 해외여행 경험률이 가장 높았으나, 전월 대비 3.8%p 하락함.
- 해외여행 경험률의 6월 TCI는 57로 코로나 이전 동월('19년 6월 41.3%)에는 크게 미치지 못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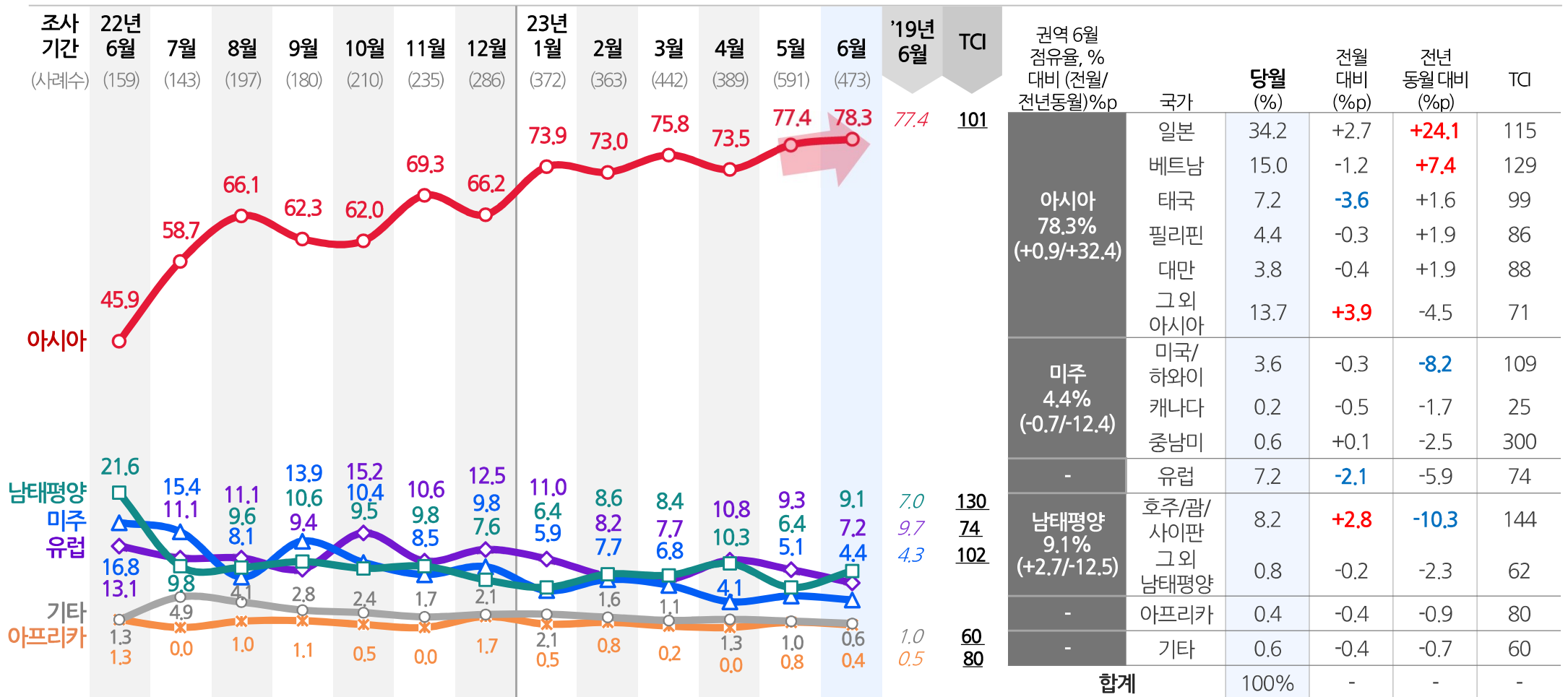
※ 조사 표본수: 주 500명, 월 2,000명(5주가 있는 월은 2,500명)
 분석 표본수: 주별 분석은 자료의 안정성을 위해 그 전 주와 단순이동 평균함(1,000명)
 SQ4-0. 귀하께서는 지난 6개월간 1박 이상의 일정으로 해외 여행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 ▲▽ 표시된 수치는 전체 값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p<0.05)
 ** 비교%p는 상하위 2개에 대해 색깔로 표시함

2. 해외여행 지역

- 해외여행지 중 아시아의 점유율은 전월 대비 증가(0.9%p)한 78.3%로 코로나 이후 최고 수준이며, TCI 역시 101로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한 상태임.
- 일본 및 베트남은 전년 동월 대비 경험률이 크게 상승하였고 TCI 역시 각각 115, 129로 코로나 이전 동월 대비 크게 상승함.
- 미국/하와이는 전년 동월 대비 8.2%p 하락하였으나, TCI는 109로 코로나 이전 수준을 넘어섰고, 호주/괌/사이판 역시 전년 동월 대비 10.3%p 감소하였으나 TCI는 144로 나타나 코로나 이전 수준을 많이 상회하는 상황임.

[단위: %]



BB2-1. 가장 최근에 다녀온 해외 여행지는 어디입니까? 주로 여행하신 지역을 하나만 선택해주시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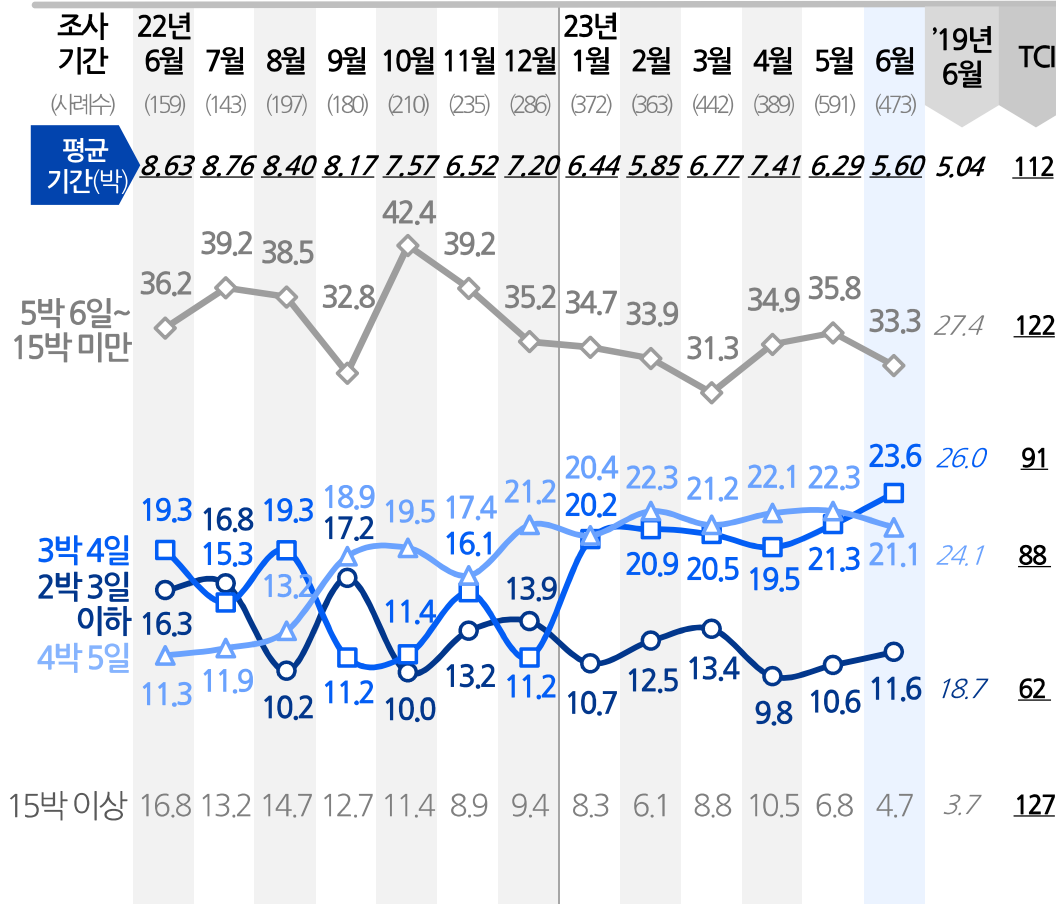
* 비교%p는 상하위 2개에 대해 색깔로 표시함

3. 해외여행 기간 및 비용

- 2~4박의 단기여행이 56.3%, '5박~15박 미만'의 중기여행이 33.3%로 '15박 미만' 여행이 90% 이상임.
- 여행기간과 총 경비의 TCI는 여행기간 5.60박(112), 총 경비 170.9만원(125)으로 여행 기간이 짧아지는 만큼 여행 비용도 감소함.
- 1일당 경비는 25.9만원, TCI는 115로 나타나, 코로나 이전 대비 더 지출하는 경향을 보임.

여행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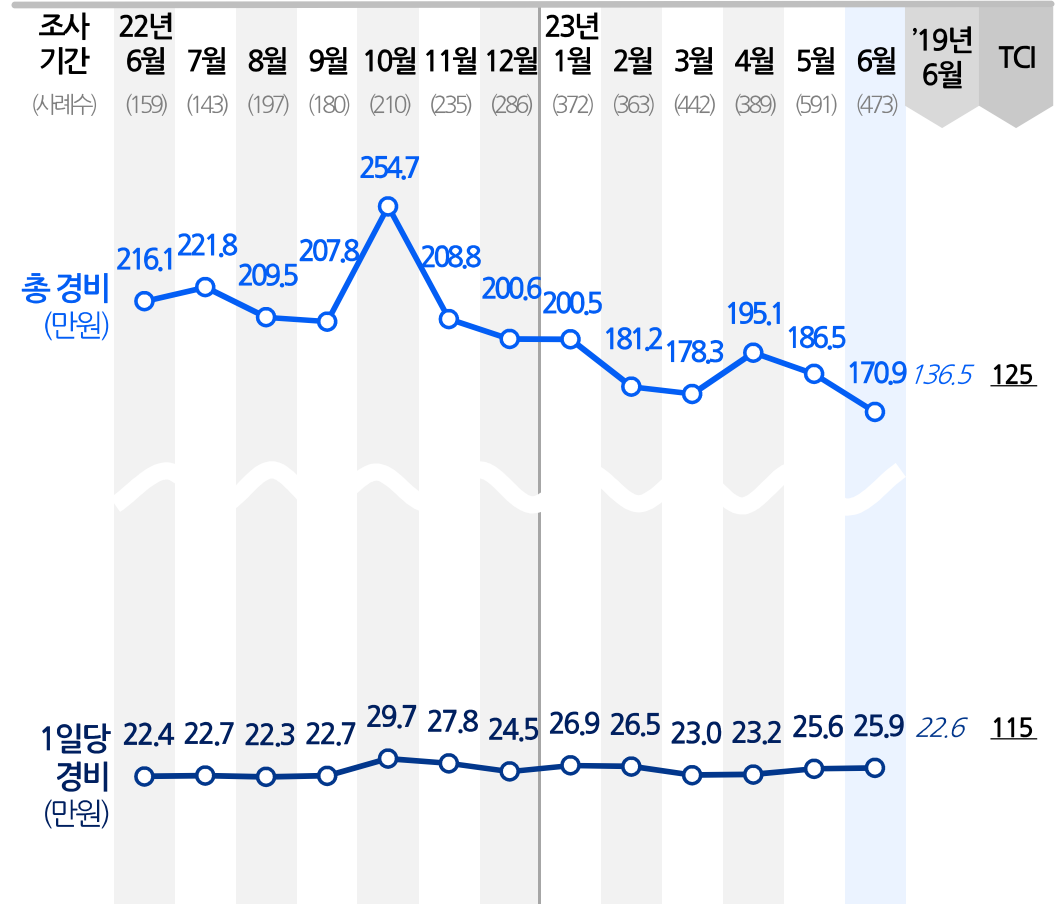
[단위 : %]



BB5-2. 다녀온 'OO'여행 여행 시기를 달력을 보고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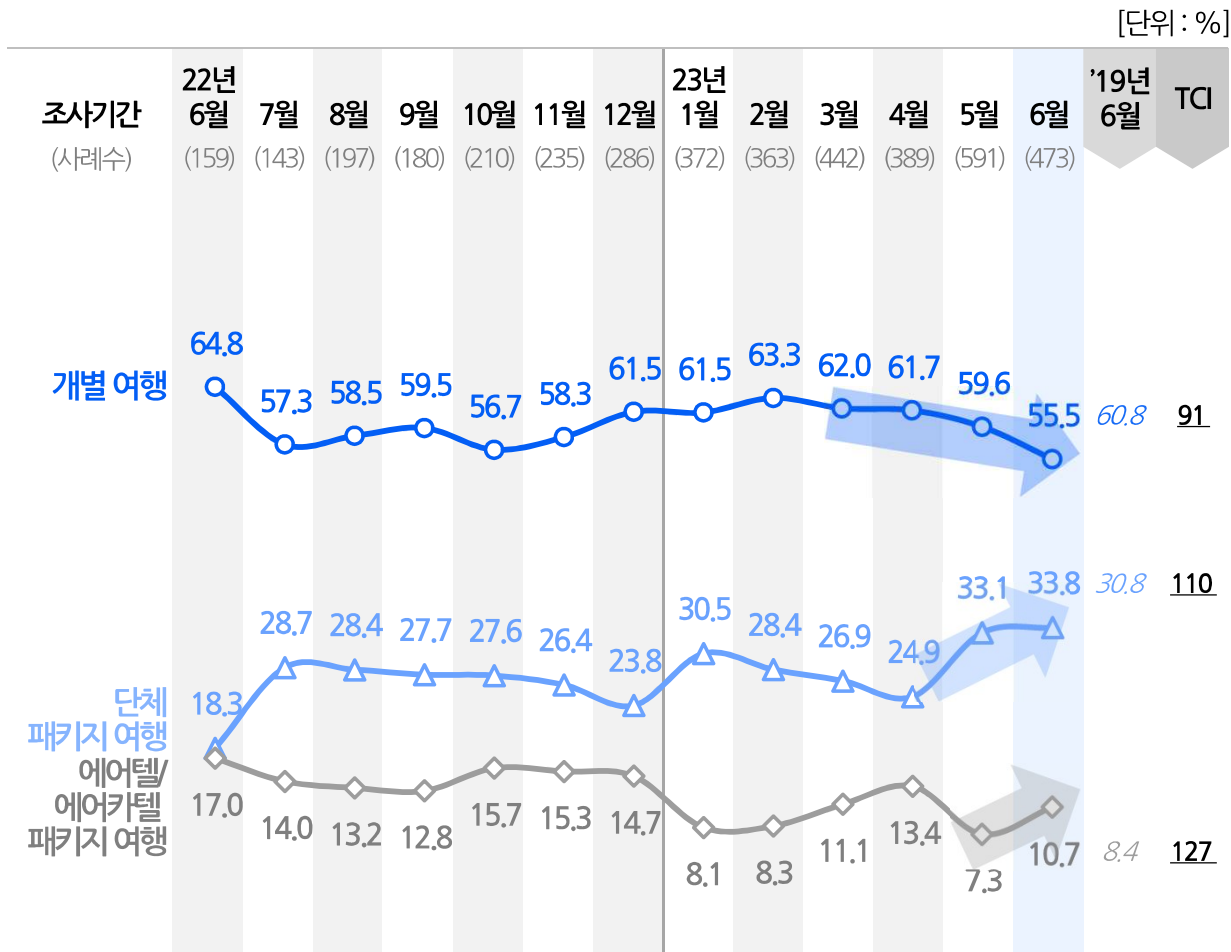
[단위 : 만원]



BB16. 'OO' 여행에서 각 부분들을 위해 대략 얼마정도 지출하셨습니까?

4. 해외여행 형태

- 해외여행 형태는 '개별여행(FIT)'이 55.5%, '단체 패키지'는 33.8%, '에어텔/에어카텔 패키지'는 10.7%로 나타남.
- 개별 여행은 2월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했으나, 단체 패키지 여행은 4월 이후 상승 추세임.
- 여행 형태 TCI는 '에어텔/에어카텔'이 127, '단체 패키지 여행'이 110, '개별여행'은 91로 '19년 동월 대비 패키지여행의 증가가 확연함.
- '개별 여행'은 아시아, '단체 패키지 여행'은 유럽, '에어텔/에어카텔'은 남태평양 및 미주 여행에서 상대적으로 많음.



▶ 여행지역별 여행 형태 (당월 기준)

[단위: %]

	전체	여행 지역				
		아시아	미주	유럽	남태평양	아프리카
(사례수)	(473)	(371)	(21)	(34)	(43)	(2)
개별 여행	55.5	59.3▲	52.3	29.4▽	41.9	50.5
단체 패키지 여행	33.8	32.9	23.9	55.9▲	32.7	0.0
에어텔/에어카텔 패키지 여행	10.7	7.8 ▽	23.9▲	14.8	25.4▲	49.5

BB8. 'OO'여행은 어떤 형태로 가셨나요?

* ▲▽ 표시된 수치는 전체 값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p<0.05)

5. 해외여행 여행지 정보탐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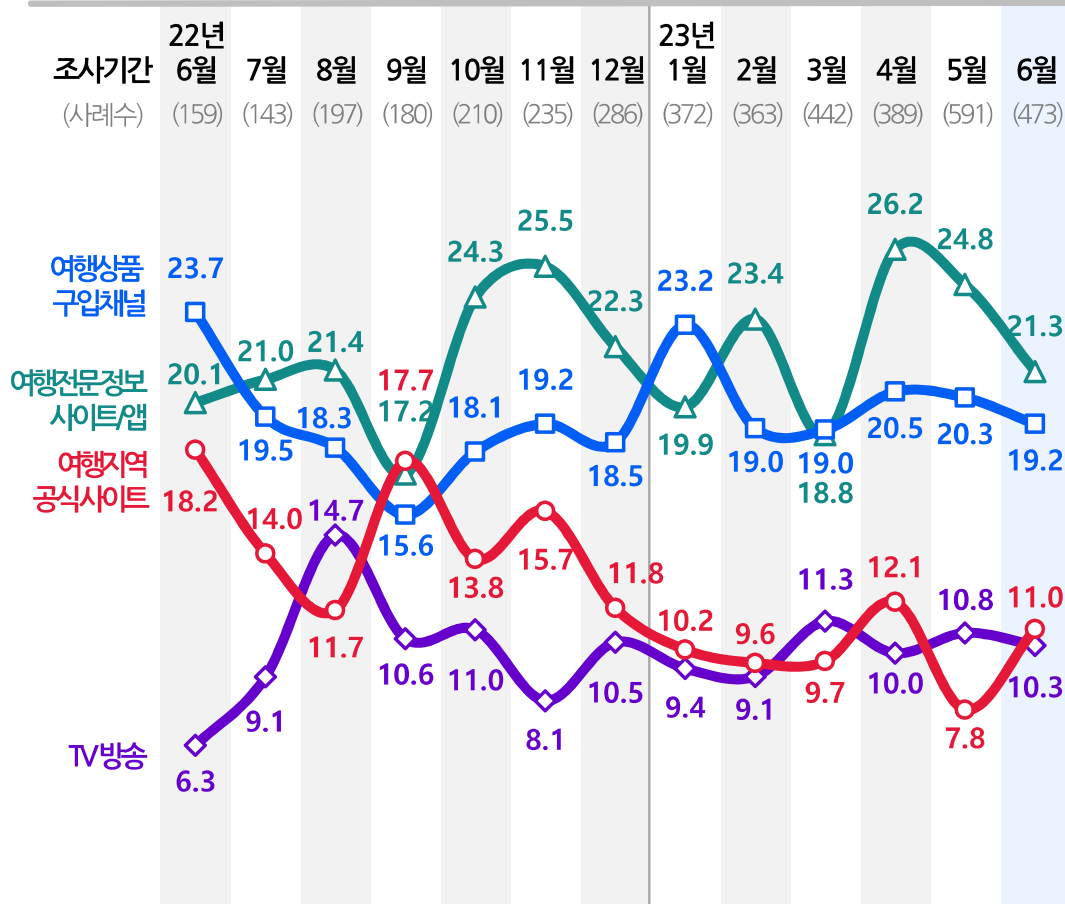
III-1. 해외여행 동향

29/39

- 해외여행지 정보 탐색 시 ‘전문/공식 정보채널’ 보다는 ‘SNS/커뮤니티 정보채널’에 더 의존하는 경향이 뚜렷함.
- ‘전문/공식 정보채널’에서는 ‘여행지역 공식사이트’가 ‘TV 방송’과 함께 하위로 위축되고, ‘여행상품 구입채널’ 역시 부진한 상태임. 즉, 상업적 채널이 위기에 빠졌다고 볼 수 있음.
- ‘SNS/커뮤니티 정보채널’에서는 ‘지인추천’과 ‘블로그’가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유튜브’, ‘커뮤니티/카페’가 따르고 있음.
- 여행산업의 극심한 침체로 상업적인 해외여행지 정보탐색 채널이 큰 위기에 빠졌고, 산업의 전반적인 개편이 따를 것으로 예측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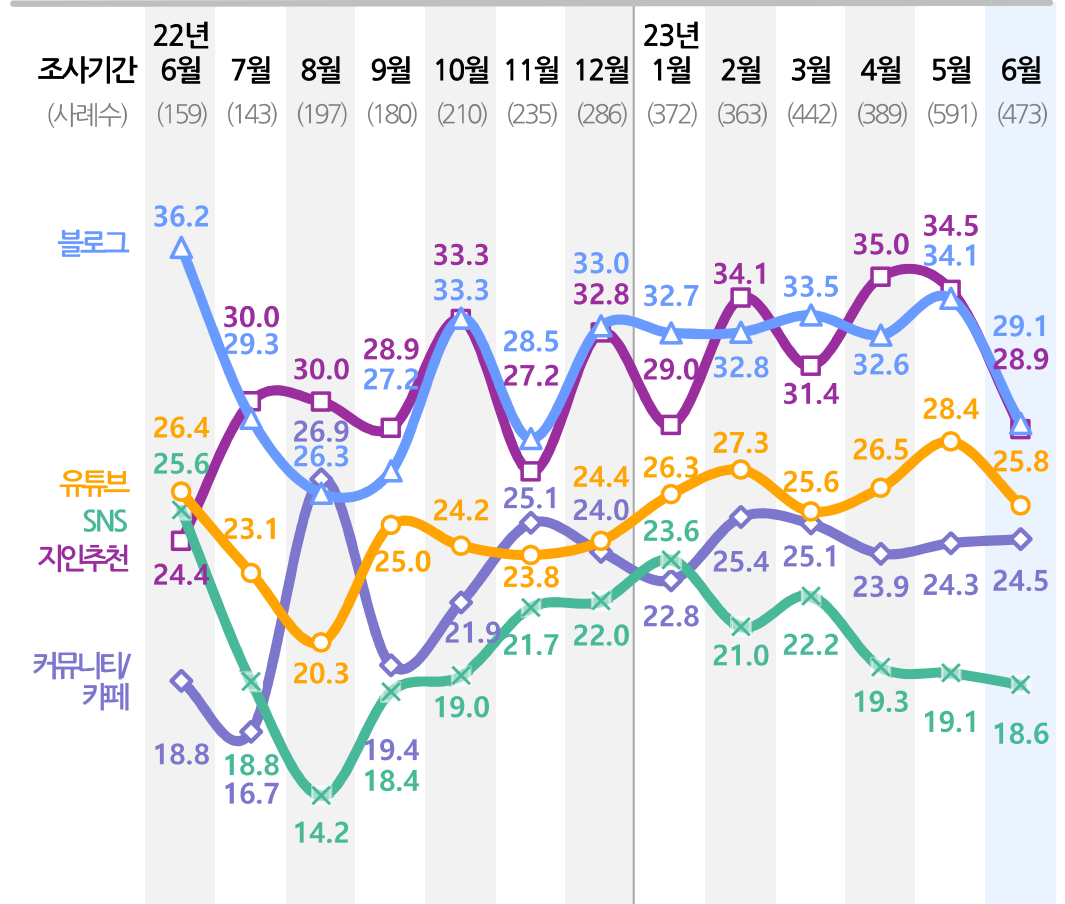
전문/공식 정보채널

[단위: %]



SNS/커뮤니티 정보채널

[단위: %]



BB5-0. 'OO' 여행의 각 준비단계에서 어떤 정보원을 참고하셨습니다?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여행지)

6. 해외여행 숙소 정보탐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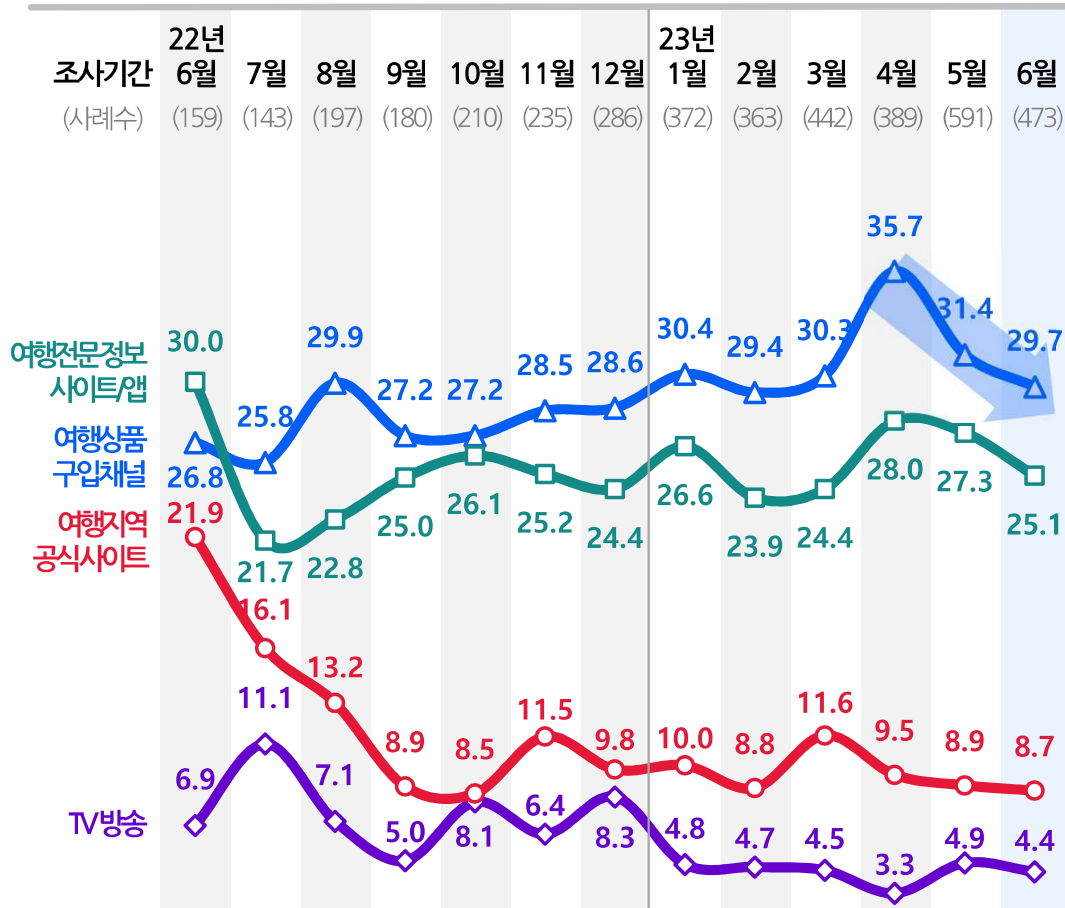
III-1. 해외여행 동향

30/39

- 해외여행 숙소 정보탐색 시 '여행상품 구입채널(29.7%)'과 '여행전문 정보 사이트/앱'(25.1%) 등 상업적 채널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었으나, 대부분의 전문/공식 채널의 이용률은 낮아지고 있는 추세임.
- 'SNS/커뮤니티' 채널 중 '블로그'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성장한 반면, '지인추천'과 '유튜브'는 하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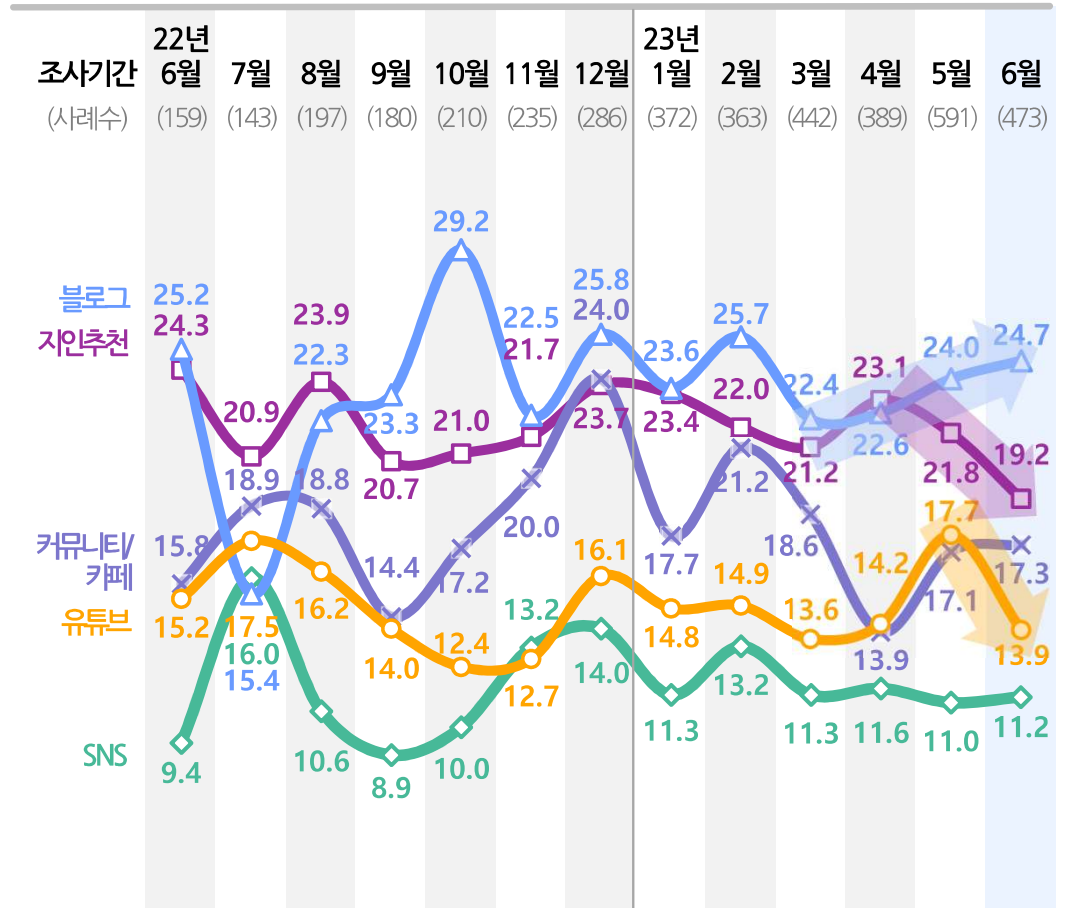
전문/공식 정보채널

[단위 : %]



SNS/커뮤니티 정보채널

[단위 : %]



BB5-0. 'OO' 여행의 각 준비단계에서 어떤 정보원을 참고하셨습니다?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속소)

CONTENTS

I. 조사개요

II. 국내여행

II-1. 국내여행 동향

II-2. 국내여행 계획

III. 해외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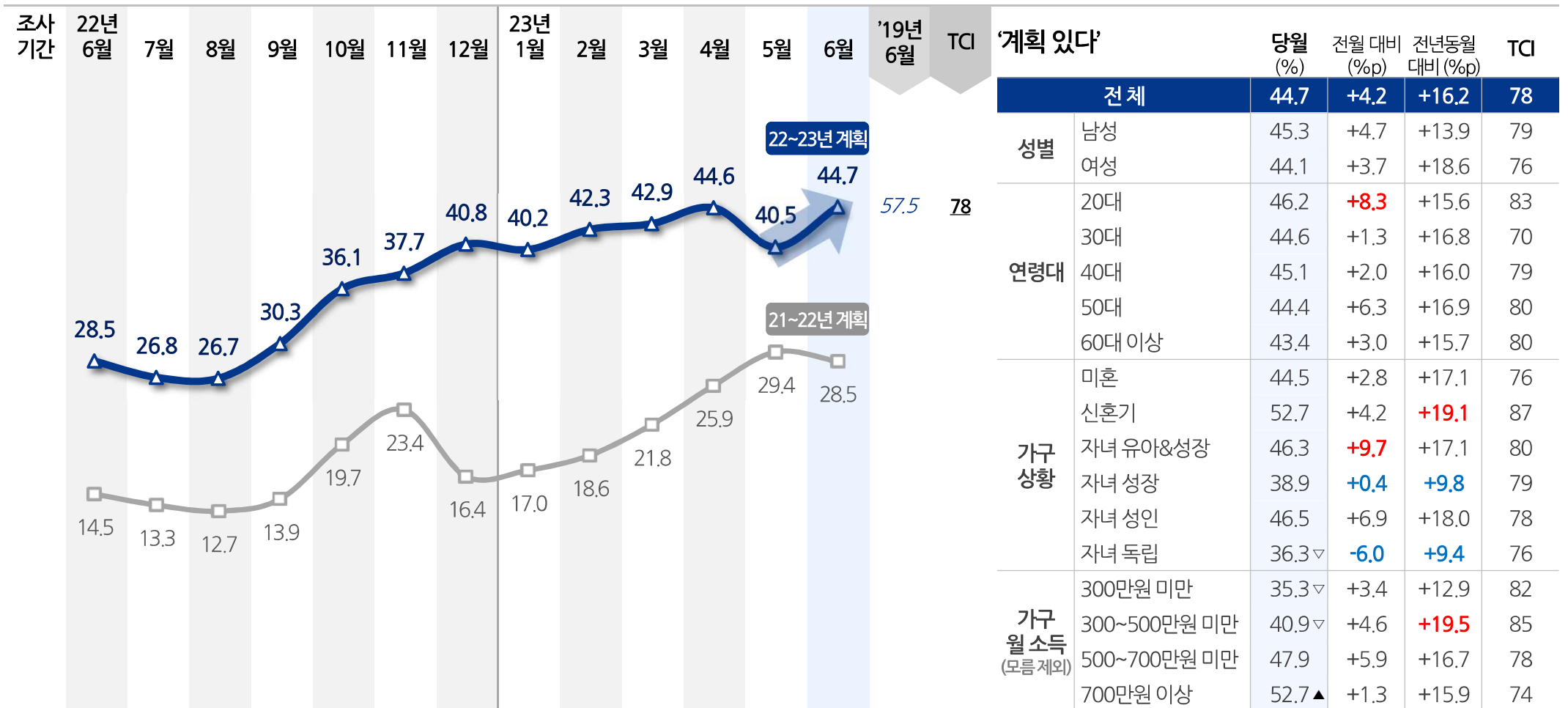
III-1. 해외여행 동향

III-2. 해외여행 계획

1. 해외여행 계획을 (향후 6개월)

- 해외여행 계획률은 '22년 8월 이후 계속 증가하다 5월(40.5%)에 처음으로 하락하였으나, 6월에 다시 4월 수준으로 반등함(44.7%)^{32/39}.
- 코로나 이전 동월(57.5%) 대비 해외여행 계획률 TCI는 78로 아직 낮은 수준이나, 전월 대비 4.2%p 상승함.
- △가구 월 소득 700만원 이상에서 해외여행 계획률이 높았으며,
△가구 월 소득 300~500만원 미만 △ 신혼기는 전년 동월 대비 큰 상승을 보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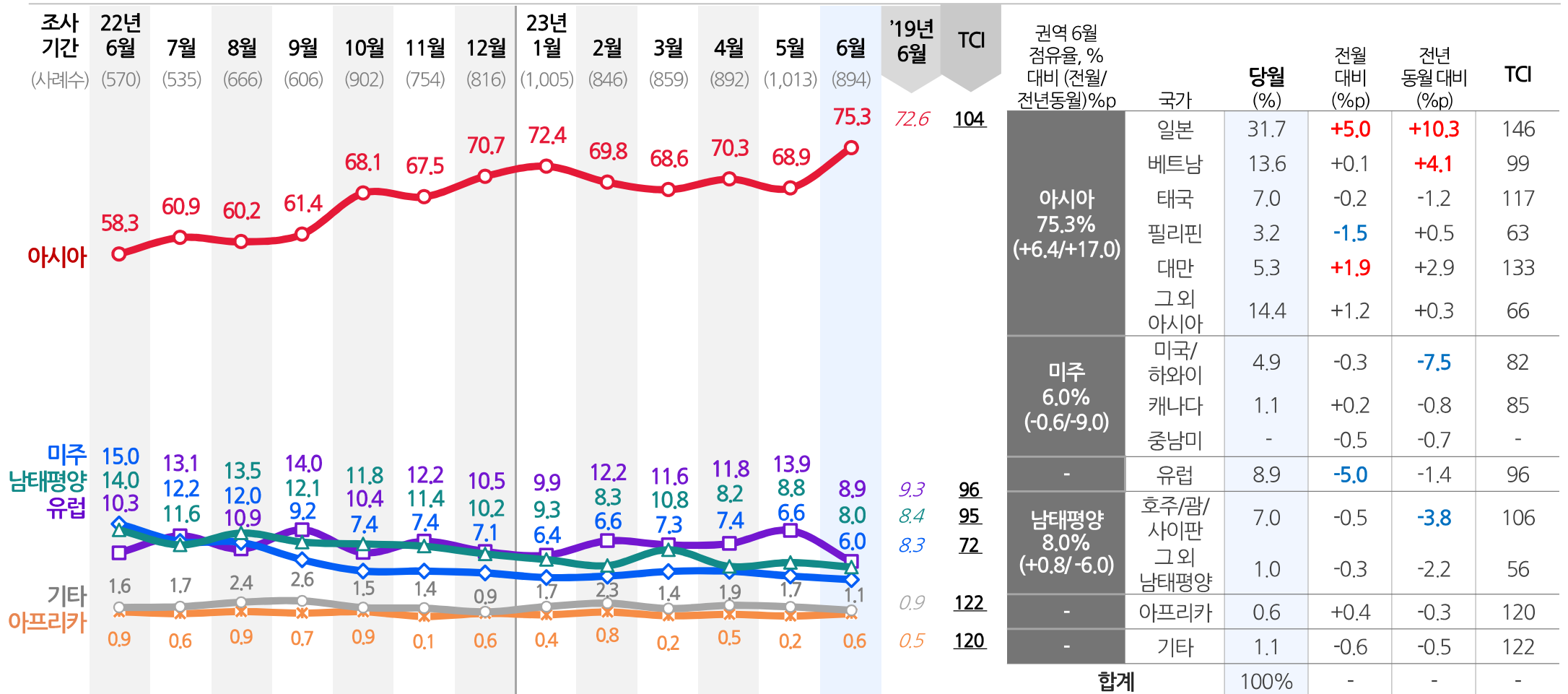
SQ4. 귀하께서는 향후 3개월 내 1박 이상의 일정으로 여행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SQ4-1. 그렇다면, 향후 6개월 내 1박 이상의 일정으로 해외 여행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 ▲▽ 표시된 수치는 전체 값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p<0.05)
** 비교%p는 상하위 2개에 대해 색깔로 표시함

2. 해외여행 예정 지역 (향후 6개월)

- 해외여행 예정 지역 점유율은 '아시아'가 전월 대비 6.4%p 상승한 75.3%이며, 권역 내에서는 '일본(31.7%)'과 '베트남(13.6%)', '태국(7.0%)' 순으로 높음.
- 아시아 다음으로 '유럽(8.9%)', '남태평양(8.0%)', '미주(6.0%)'의 순임.
- 해외여행 예정지 점유율의 TCI는 아시아(104)를 제외하고 '19년 동월 대비 낮은 상황임.

[단위: %]



B2-1. 앞으로 계획하고 계신 해외 여행지는 어디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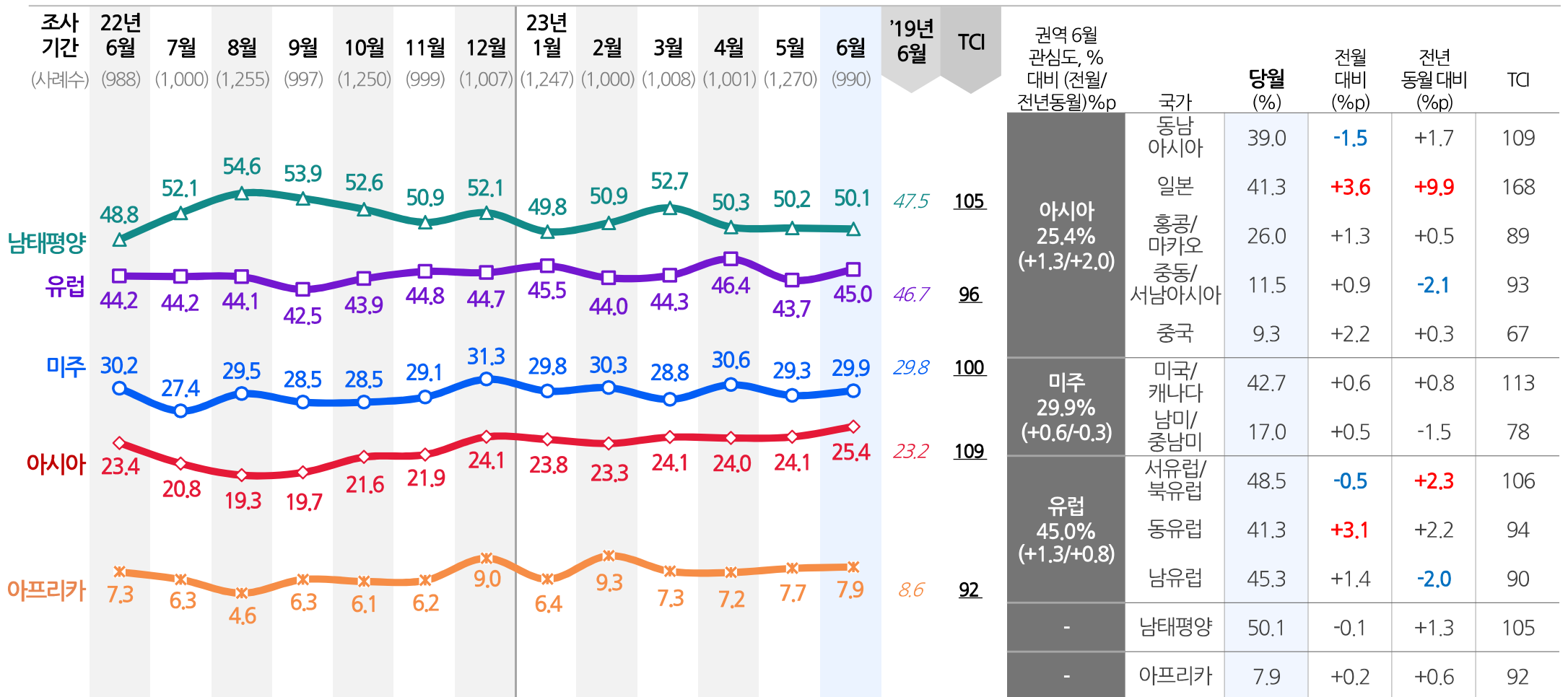
B2-2.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시기에 여행 목적지가 될 가능성이 가장 큰 해외 여행지는 어디인가요?

*비교%p는 상·하위 2개에 대해 색깔로 표시함

3. 해외여행 지역 관심도

- 해외여행 지역 관심도(% , '많아졌다')는 '남태평양(50.1%)', '유럽(45.0%)', '미주(29.9%)' 순임.
- 아시아권 내에서는 동남아시아와 일본의 관심도가 전년 동월 대비 1.7%p, 9.9%p씩 상승함.
- 해외여행 지역 관심도의 TCI는 아시아 109, 남태평양 105로 코로나 이전 보다 관심도가 높은 상황임.
- 국가별 TCI는 일본이 168로 가장 높았음(2019년 NO JAPAN 캠페인에 따른 기저효과 감안 필요).

[단위 : Top2 box%(매우 많아졌다+많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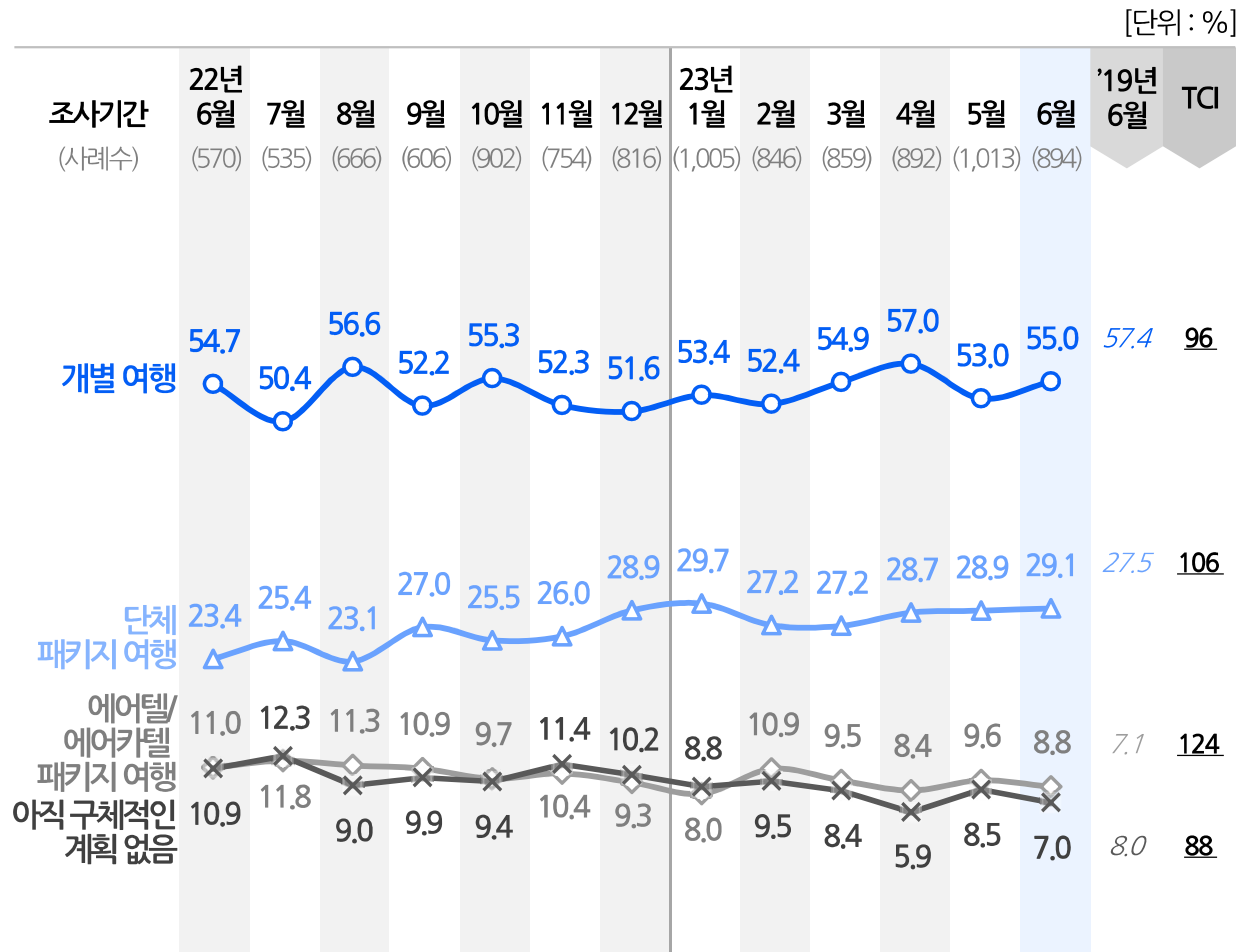


SQ3-1. 요즘 000을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예전에 비해 ... (5점 척도)

* 비교%p는 상·하위 2개에 대해 색깔로 표시함
** 권역 관심도는 해당 권역 내 지역 관심도의 산술평균임

4. 선호 해외여행 형태 (향후 6개월)

- 선호하는 해외여행 형태는 '개별 여행(FIT)' 55.0%, '단체 패키지' 29.1%, '에어텔/에어카텔 패키지' 8.8% 순임.
- 특히 '개별여행'은 아시아, '단체 패키지'는 유럽, '에어텔/에어카텔 패키지'는 미주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선호 여행 형태의 TCI는 '에어텔/에어카텔 패키지'가 124로 가장 높음.



▶ 여행지역별 선호 여행 형태 (당월 기준)

[단위: %]

	전체	여행 지역				
		아시아	미주	유럽	남태평양	아프리카
(사례수)	(894)	(674)	(54)	(80)	(72)	(5)
개별 여행	55.0	58.2▲	48.3	37.5▽	55.5	59.8
단체 패키지 여행	29.1	27.1▽	24.0	43.7▲	30.6	40.2
에어텔/에어카텔 패키지 여행	8.8	8.2	18.4▲	6.2	12.5	0.0
아직 구체적인 계획 없음	7.0	6.5	9.2	12.5▲	1.4	0.0

B8. 'OO' 여행은 어떤 형태로 갈 생각이신가요? (개별여행/단체 패키지/에어텔-에어카텔)

* ▲▽ 표시된 수치는 전체 값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p<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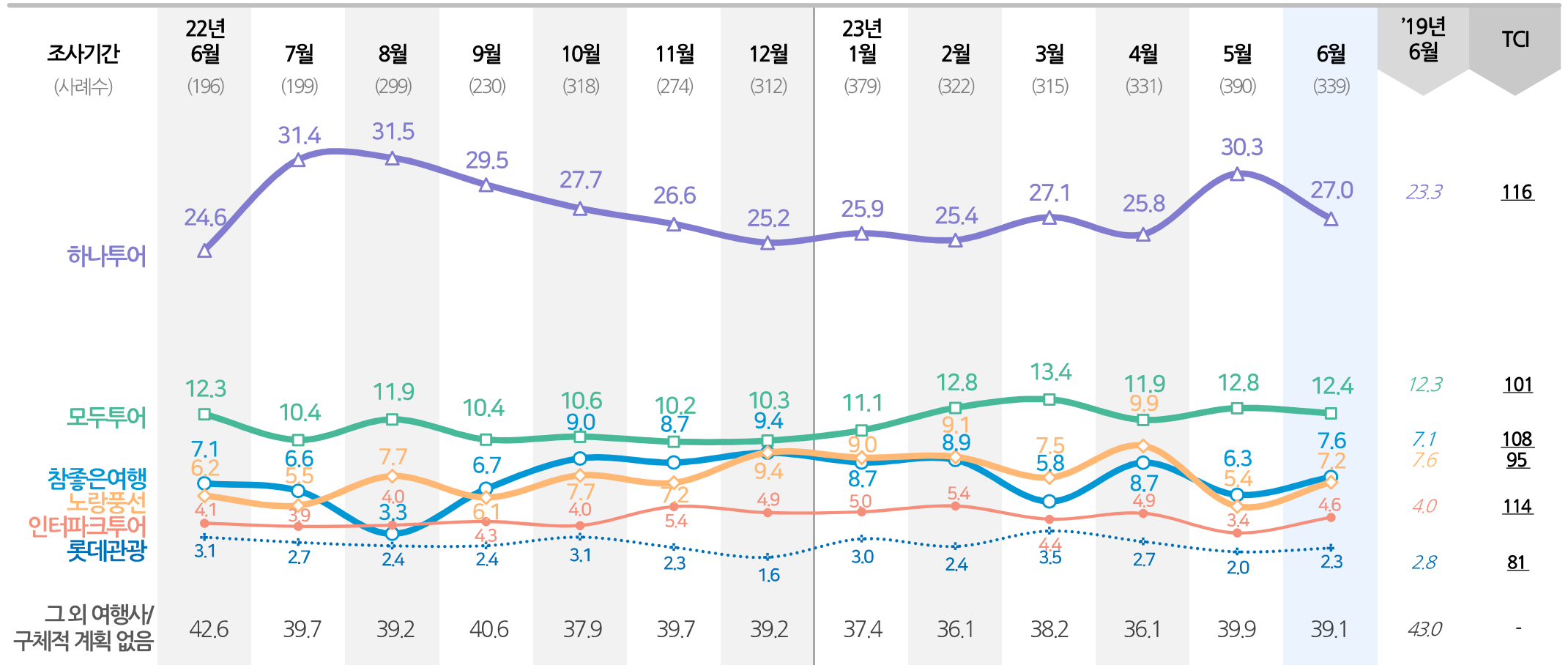
5. 해외여행 종합여행사 브랜드 이용의향 (향후 6개월)

III-2. 해외여행 계획

36/39

- 향후 해외여행 시 이용하고 싶은 종합여행사는 '하나투어' 27.0%, '모두투어' 12.4%, '참좋은여행' 7.6%, '노랑풍선' 7.2% 순임.

[단위: %]



B10-4. 다음 여행(향후 계획 여행)을 위해 여행상품을 예약/구입했거나, 이용하고 싶은 여행사는 어디입니까?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Appendix



[참고] 코로나와 여행 환경 이슈

[참고] I. 코로나와 여행 환경 변화

*㉠ 코로나19 관련 이슈, ㉡ 여행 관련 이슈 38/39

2020년	01월	㉠ 중국(우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집단 발병(2019.12) 이후 국내 첫 확진자 발생(2020.01) ㉠ 세계보건기구(WHO), 코로나19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선포
	02월	㉠ 국내 집단 감염 발생 및 대규모 유행 등으로 전국 확산 ㉡ 특별입국절차(코로나19 국외 유입 및 확산 방지 목적 국내 입국 내외국인 검역 시행 절차) 시행 ㉡ 일부 국가(이스라엘, 요르단 등) 한국인 입국금지 실시
	03월	㉠ 코로나19 관련 방역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 (2020.03 ~ 2022.04, 상황별/단계적 실시) ㉡ 해외 대부분 국가·지역 한국발 입국금지
	12월	㉠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 강화 (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발효) ㉡ 5개 항공사 국제선 운항중단(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플라이강원)
2021년	02월	㉠ 국내 백신 접종 시작
	11월	㉠ 위드코로나(방역 완화 등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
	12월	㉠ 국내 오미크론 변이 환자 발생 및 확진자 급증 ㉠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 강화(사적 모임 제한 4명으로 축소)
2022년	01월	㉡ 트래블버블(코로나19 감염 안전 평가 국가에 한해 자유로운 관광을 허용하는 제도) 국가 확대
	03월	㉠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 완화(사적 모임 인원 8명까지 확대) ㉡ 해외입국 자가격리 의무 면제
	04월	㉠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05월	㉠ 해외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
	10월	㉡ 국내 입국자 PCR검사 의무 해제 및 국제선 항공기 운항 수 제한 해제
2023년	03월	㉡ 정부, 내수활성화대책 100만명에 휴가비 600억 지원 발표
	05월	㉠ 정부, 코로나 엔데믹 선언; 6월부터 방역 규제 및 격리 의무 해제 ㉠ 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 하향(격리 5일 권고 전환)

2023년 6월

1주	06.05 ~ 06.11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현충일(06.06) K-TAC(대한중소여행사협동조합), '여름아 놀자' 할인 프로모션 진행
2주	06.12 ~ 06.18	서울시 지정 BTS 데뷔 10주년 관광주간, 'BTS 페스타' 서울 시내 주요 명소에서 진행(06.12~25) 브루노마스 슈퍼콘, 서울에서 개최 (06.17~18)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2023 강릉단오제'(06.18~25)
		2023 워터밤 서울, 인천, 부산 등 9개 도시서 개최 (06.23~08.19) 서울시, '최고의 아시아 레저 도시' 선정 (Global Traveler, 제 11회 Leisure Lifestyle Awards) 6.25전쟁일 한국관광공사, '2023 펫(Pet) 관광 포럼' 개최
3주	06.19 ~ 06.25	
4주	06.26 ~ 07.02	전국 해수욕장 개장 2023 인천 펜타포트 음악축제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홍보관 '하이커 그라운드' 개관 1주년 '하이커 페스타' 개최

2023년 5월

1주	05.01 ~ 05.07	근로자의 날(05.01), 어린이 날(05.05) 해외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 폐지 '서울페스타 2023(공연/음식/쇼핑/야경 등)', 서울 전역 개최 (04.30~05.07) 프리미엄 아트페어 '아트부산 2023' 개막(05.05~07)
2주	05.08 ~ 05.14	어버이 날(05.08) 정부, 코로나 엔데믹 선언; 6월부터 방역 규제 및 격리 의무 해제 도자기축제 개막 (이천·여주)
3주	05.15 ~ 05.21	스승의 날 (05.15) 전통문화축제 '2023 연등회' 개최(05.19~21) '2023 공예주간' 개막(05.19~28)
4주	05.22 ~ 05.28	광, 태풍 '미와르' 강타에 공항 폐쇄 2023 서울 재즈페스티벌 개최(05.26~28) 지역 축제 (춘천마임축제 05.28~06.04/ 함안낙화놀이축제 05.27/ 포항국제불빛축제 05.26~28)
5주	05.29 ~ 06.04	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 하향(격리 5일 권고 전환) 부처님 오신 날(대체 공휴일, 05.29) 2023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 (지역편: 5.30~06.01, 전국편: 06.02~30)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 2023 여행가는 달 캠페인 진행(06.01~30) 2023 월드 디제이 페스티벌 개막 (06.02~04)

컨슈머인사이트 여행 홈페이지에서 더 다양한 여행/문화/스포츠 관련 이슈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consumerinsight.co.kr/leisure-travel/r_issue

Thank You

본 보고서 관련 문의는 아래로 연락 바랍니다.

김민화 연구위원 (kimmh@consumerinsight.kr/02-6004-7643)

이승호 부장 (leesh1@consumerinsight.kr/02-6004-7625)

현소리 대리 (hyunsr@consumerinsight.kr/02-6004-7658)